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운영전>에 나타난 욕망현시 양상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현 옥

<운영전>에 나타난 욕망현시 양상

A Study on Aspect of the Desire in Un-yeong-jeon's

200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현 옥

<운영전>에 나타난 욕망현시 양상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국어교육)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현 옥

박현옥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준 철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 중 인

200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i
---------------	----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	1
2. 연구사 검토 -----	3

II. 시대적 상황과 인물들의 욕망 체계

1. <운영전>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 -----	7
2. 성리학적 지배질서와 인물들의 욕망 체계-----	10

III. 등장인물의 욕망현시 양상

1. 운영, 想像的 主體의 未洽 -----	16
1) 자아에 대한 각성과 상상적 주체 추구의 욕망 -----	16
2) 주체의 인식 미달과 타자에의 종속-----	24
2. 김진사와 유영, 脫象徵向想像的 主體-----	28
1) 상상속의 대타자에 대한 욕망-----	28
2) 주체의 결핍으로 인한 도피의 욕망-----	34
3. 안평대군, 象徵的 主體의 彷徨 -----	40
1) 왜곡된 정치적 욕망 -----	40
2) 이상세계 건설에의 욕망과 좌절 -----	44
4. 특, 前象徵的 主體의 復讐 -----	49
1) 트릭에 의한 보상 추구의 욕망 -----	49
2) 파괴적 욕망 -----	54

IV. 결론 -----	58
--------------	----

참고문헌 -----	62
------------	----

ABSTRACT

A Study on Aspect of the Desires in *Un-young-jeon's*

Park hyun-ok

Advisor: Prof. Kim soo jung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peculate the aspects of desires according to the characters in *Unyoungjeon*, a tragic love story written in the 17th century. Joseon period when this story was created was controlled by Confucian ideologies, oppressed desires of the people and compelled them to follow main stream. The subjects in this story pursued their desires though they were in continuous conflicts and disunion according to violent drives of their desires caused by lack of satisfaction.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Chapter 1 identifies the purposes and method of the study. Chapter 2 tries to understand the chronological condition of Joseon period when *Unyoungjeon* was created. In the 17th century, Joseon had two wars named Imjinweran and Byeongjahoran through which Confucian governing ideology which was a base of governing the people was reinforced and doubts and reflection on it appeared.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ous desires of the subjects revealed under two-prong governing ideology. For the purposes, this study analysed the inclinations of the subjects in the story in aspects of resistance and

compliance under the Confucian governing ideology.

Chapter 3 identified what aspects the desires show according to inclinations of the subjects categorized in Chapter 2 in terms of Confucian governing ideology. This study focused on Unyoung who was progressive in establishment of female identity in history of our ancient literature and Anpyeongdaegun who reflected progressive aspect of the gentry. And we analysed Kimjinsa and Yuyoung who perceived the contradiction of Confucian governing ideology but could not resist against it as subjects of limits. This study analysed Teuk who was isolated from Confucian ruling ideology because of his limitation in social status, focusing on his destructive desires.

In conclusion, it organized characters' desires and presumed internal desires the author intended to address through creation of <*Unyoungjeon*>. The author of this story is unknown, but this study speculated his internal desires to present through *Unyoungjeon*. He desired the society in which humanity was recognized through Unyoung and reflected a tragedy of lost bases of reality through Kimjinsa and Yuyoung. He attributed such tragedy to changes in reality and social contradiction. The author desired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as a literary person in the society where Confucian social order dominated while he desired an escape from the society where humanity was lost.

This study found that the subjects of *Unyoungjeon* resisted against lack of humanity through inferring desires of subjects and the author. That is, that the subjects in the story felt deficit in reality and continued to pursue for satisfaction of their desires shows how much pursuit of human life that realizes desires is important. And this study confirms human will that humanity is never hurt under any ruling ideologies or inhuman conditions.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이 논문은 17세기 애정 비극소설인 <운영전>에 나타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욕망현시 양상을 고찰하면서 <운영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보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욕망의 테마를 중심으로 심리학적 접근과 서사학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운영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지평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욕망이란,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보편적 본성으로 현실의 결핍에서 충족을 지향한다. 인간이 욕망의 충족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존재이고, 문학 작품의 탄생은 인간에 의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문학 작품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내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에 비추어 한 개인의 욕망에는 그가 속한 집단과 사회의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의 문학 작품 속에는 개인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동시에 그 집단과 사회의 욕망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욕망의 서사가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결핍에 따른 욕망의 충족 지향은 문학 작품 속에서 인물의 행위나 사건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사 공간 안에서 결핍을 느끼는 주체는 욕망을 생성하고 이러한 욕망의 추동은 새로운 서사적 상황을 만든다. 결핍에 의해 발생한 욕망은 완전한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을 바꾸어가며 새로운 서사적 상황으로 나아갈 뿐이다. 즉, 작품 속에서 주체는 결핍된 상황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충족을 지향하는 서술로 향하고 있다. 욕망을 생성하는 결핍이라는 서사적 상황은 작품 속 인물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며, 그들로 하여금 그 사회가 갖는 상징적 질서 혹은 법에서 탈출을 욕망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욕망을 결핍에 의해 끊임없이 충족을 지향하는 무엇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작품 속의 주체들이 서사적 상황 즉, 서사 내부의 상징적 질서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욕망을 실현하고자 내적 혹은 외적으로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를 욕망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운영전>에 나타난 주체의 욕망추구 정도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욕망현시 양상을 텍스트 안과 밖의 사회현실과 관련지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인물들이 각 서사 상황에서 어떤 욕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욕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¹⁾ 그리고 <운영전>이 안평대군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끌어들이 의미 작용함으로써 해석의 폭을 넓혔다는 점과, 그 배경이 17세기 임병양란 후의 혼란을 겪는 조선의 성리학적 지배이념 하에서 창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운영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욕망은 성(性)과 사회와 관련을 가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내적 욕망을 보인다. 특히 <운영전>의 주인공 ‘운영’의 경우 성적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여성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자각을 가지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이런 ‘운영’의 욕망은 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직접적인 대립을 낳고 있다. 그리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각기 다른 욕망 양상을 보이며 글을 이끌어 가고 있다.

중심인물이 되는 ‘운영’과 ‘김진사’ 그리고 사랑의 방해자로 등장하며 지배이데올로기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안평대군’의 욕망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액자 밖의 인물이지만 작가의 생각과 욕망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로 보이는 ‘유영’의 욕망과 악인으로 등장하는 ‘특’의 욕망²⁾을 다루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전>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욕망현시 양상을 고찰해 봄으로써, 작중 인물들의 행동 양식과 사고를 이해하고, 나아가 작품과 널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 볼 것이다.

또, <운영전>의 욕망현시 양상을 플롯 읽기를 바탕으로 분석하면서, 그것이 작가의 욕망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1) 우찬제, 「이기영의 <고향>의 욕망현시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9, p.268.

2) 이 논문에서 특의 욕망은 엄밀한 의미에서 욕구에 가깝다. 특은 하층민으로 진정한 결핍을 느끼고 타자에 의해 욕망이 추동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운영전>의 등장인물 중 특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특의 욕망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특의 욕구에 가까운 욕망을 욕망의 차원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2. 연구사 검토

<운영전>은 우리 고소설사에서 비극적 결말이라는 희귀한 특성 때문에 일찍이 학계의 관심을 받아 왔다. <운영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김진사와 운영의 애정에 대한 비극적 결말이나 구조적인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초기의 학자들은 이 소설을 소개하는데 머물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 소설에 관한 구조적 분석·접근이 뒤따르게 되어 <운영전>연구는 상당한 진보를 보이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비극성과 관련된 연구, 원전과 이본에 관한 연구, 관련된 작품과 비교연구, 작가 및 제작연대에 관한 논의, 작품의 구조, 등장하는 여성인물이나 여성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교육학적 접근이 이루어져 교육현장에 여러 가지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³⁾ 이처럼 <운영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접근을 시도한 결과 깊이 있는 논의와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먼저 비극성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맨 처음 거론한 이는 안자산⁴⁾으로 <운영전>이 비극적인 요소를 지니기는 하였으나 순수한 비극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소재영은 <운영전>의 비극적 특질은 운영의 비극과, 정치적으로 실의를 당한 안평대군의 비극, 그리고 전란의 폐허가 가져다준 전쟁비극의 종합 산물이라 분석하였다.⁵⁾ 또한 안평대군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역사적 작품의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정해주는 낡음 속에 피어나는 새로움은 언제나 역사적 반동에 시달리게 마련이요, 이 시달림을 이겨내려고 갖가지 어려운 비극이 빚어지는데 이러한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는 유일한 비극소설이 바로 <운영전>이라 하면서 하나의 애정비극소설이라 보기보다는 불충분한 대로 엄격한 봉건체제와 가치관 속에서 인간적 자각과 인간 발전의 위대한 진실을 표출한 인간존엄성의 승리를 담은 작품이라 귀결지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⁶⁾ <운영전>의 비극성은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한결 같이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좌절한, 비극적 인물들이란 점에

3) 이인화, 「<운영전>의 애정 구현양상」,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 안자산, 『조선문학사』, 최원식 역, 을유문화사, 1984, p.175.

5) 소재영, 「운영전 연구-운영의 비극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1,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6) 정해주, 「<운영전>의 비극적 구조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서도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일용은 <운영전>은 비극적 형식에 이르러서 작중 인물이 자신의 모순적 처지와 그것을 규정하는 질서의 모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획득하고, 그 모순적 현실을 넘어서서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려 한다고 했다.⁷⁾ <운영전>의 작중인물들이 모순적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려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운영전>의 원전과 이본에 관한 연구에서는 원전을 한문본으로 보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선본, 이본간의 선후 관계, 변이양상 등은 제대로 가려내거나 밝혀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그러므로 앞으로 이본간의 선후 관계나 변이양상 등에 더욱 본격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운영전>과 다른 작품과의 비교연구는 김일렬이 <구운몽>, 김영화는 <로미오와 줄리엣>, 김락효는 <영영전>을 각각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였다.

작가에 대한 연구는 김태준이 그의 『조선소설사』에서 <운영전>의 작가를 유명이라고 본 이후로 모두 이를 따르고 있다.⁹⁾ 이는 <운영전>의 유명을 실존했던 인물로 보는 것이다.

저작연대에 관한 연구는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선조 34년으로 잡은 이래로 모두 그 설을 좇고 있으며¹⁰⁾, 성현경은 17세기 전반 곧 1601년에서 1641년 사이에 저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¹¹⁾

<운영전> 구조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몽유구조와 환혼구조로 갈라져 연구되어 왔다. 성현경은 <운영전>의 구조를 이원론적 혼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치관에 있어서 일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¹²⁾ 윤해옥은 <운영전>에서는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몽유, 즉 몽중세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환혼 모티프를 주장하고 있다.¹³⁾ 서대석은 <운영전>이 구조에 있어서 몽유록과 다른, 이중 액자의 특이한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쉽사리 그 구조가 밝혀 지지 않는 것은 <운영전>이 가진 독특한 구조 때문일 것이다.

7)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p.182.

8) 성현경, 「<운영전론(2): <운영전>재론」,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8. p.118.

9)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p.71.

10) 김태준, 위의 책. p.71.

11) 성현경, 위의 책, p.123.

12) 성현경, 위의 책, p.110.

13) 윤해옥, 「<운영전>의 구조적 고찰」,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0, p.126.

14)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계명대 한국학논집』 3, 계명대, 1975.

이 밖의 <운영전>에 관련한 연구 중 대표적 논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정출현은 ‘금지된 사랑’의 주인공인 윤영과 김진사의 사랑뿐만 아니라 안평대군의 ‘고독한 사랑’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안평대군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모두가 애정에 목말라하는 군상으로 해석하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애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아가지만 결국엔 비극적 파탄을 초래하며 막을 내린다고 설명하였다.¹⁵⁾

이상구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서술시각을 중심으로 작가의식 및 <운영전>이 이룩한 현실주의적 성취와 그 한계를 검토 하였다.¹⁶⁾ 그는 <운영전>의 작가를 철저히 몰락하여 현실 대응력을 상실한 계층으로 보고, 이러한 작가의 처지에 기인하여 <운영전>에는 중세적 이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새롭게 성장하는 계층에 대한 적대감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을 때, <운영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여러 논의 중에서도 비극성과 여성인물 혹은 여성관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미 상당한 업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 인물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의 현시 양상에 관한 연구가 미비함을 인식하고, 선행된 기존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운영전>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욕망현시 양상과 관련한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인물의 성격과 구조 등을 다루는 중 약간씩 거론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황윤실의 「17세기 애정전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발현 양상」에서 <운영전>에 등장하는 여성인 윤영과 궁녀를 그 자아각성과 지배이데올로기의 순응과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그 주체적 성격을 다루고 있다.

김경미는 <운영전>이 윤영이라는 여성 주인공을 서술자로 등장시켜 자신의 연애담을 이야기하게 하는 새로운 이야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여성 서술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전기소설의 욕망 주체에 대해서 고찰했다. <운영전>의 작가는 여성 서술자를 내세워 봉건 제도하의 궁녀의 처지를 이해하고 봉건 제도의 모순을 제시하여 현실주의적 꺾임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기소설의 전통을 변용하여 여성 중심의 새로운 애정 서사를 보여주었다고 했다.¹⁷⁾

15)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16)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한국고소설의 자료와 해석』 5, 한국고소설학회, 아세아문화사, 2001, p.458.

17)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

그리고 임수현은 궁녀훼절 소설을 중심으로 플롯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다루면서 궁녀와 안평대군의 관계를 원망세계, 지식세계, 의무세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¹⁸⁾ 또, 박경민이 2008년 「〈운영전〉의 욕망추구양상과 인물성격」의 주제로 〈운영전〉을 연구했다.¹⁹⁾

필자는 아직 〈운영전〉에 나타난 욕망현시 양상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착안하였다. 그리고 앞의 논문들을 기반으로 〈운영전〉의 인물들이 17세기 사회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방식과 작품 속 주체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려 한다. 이것은 〈운영전〉연구에서 지금까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체의 ‘욕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문학회, 2002.

18) 임수현, 「고소설에서의 플롯과 권력의 역학관계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108~172.

19) 박경민, 「〈운영전〉의 욕망추구양상과 인물성격」,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II. 시대적 상황과 인물들의 욕망 체계

1. <운영전>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지배이념을 바탕으로 안정된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17세기의 조선사회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변화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2백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집권체제는 16세기 말부터 사회 내부의 동요를 겪는 가운데 일본과 청의 침입으로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²⁰⁾

그렇다면 16세기의 역사적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다가 일본과 청의 침략을 겪으면서 전개된 17세기 조선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16세기 말의 조선사회를 강타한 임진왜란은 기본적으로 17세기 조선사회에 전란으로 황폐해진 경제적 기반을 재건하고, 정치체제와 사회질서를 복구해야 하며, 전란을 통해 강화된 명의 정치적 입김과 후금(後金)의 군사적 압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였다. 그리고 1623년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왕을 바꾼 인조반정은, 17세기 중반의 정치세력 재편과 그 재편의 결과 집권적 위치에 서게 된 정치세력이 이끌었던 정치운영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으로 인한 충격, 기상 이변과 대기근 등 각종 자연재해가 더해지면서 17세기 중반의 집권층이 정국을 운영하면서 풀어야 했던 과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었다.

17세기 중반 조선이 해결해야 했던 역사적 과제는 그 시기에 들어와 처음 제기된 문제들이 아니라 이미 16세기 조선사회가 안고 있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다시 등장했던 측면이 강했다. 우선 정치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는 16세기에 단초가 마련된 사림(士林)중심의 정치체제가 자기 정체성을 정립해나가는 때였다고 할 수 있다. 즉 16세기에 겪었던 사화(士禍)의 충격, 붕당 형성 초기의 대립과 왜란을 거치면서 나타났던 붕당 사이의 이합집산, 광해군대 대북파(大北派)의 독주, 인조반정 이후 서인들의 집권 세력화 등 정치적 파란을 겪으면서 17세기에는 붕당과 붕당 사이, 붕당과 군주 사이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정립하려는 노력

20) 김준석, 『조선후기 정치사상사 연구-국가재조론의 대두와 전개-』, 연세국학총서 32, 지식산업사, 2003, p.11.

이 기울여졌던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16세기에 이미 과전법(科田法)의 붕괴, 상인층의 성장과 농촌 상업의 발달, 관청수공업의 발달, 장시의 발달, 군역의 포납화(布納化)와 양역화, 공물의 방납 성행 등이 나타나 사회운영에 심각한 변동의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16세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그것이 발전적으로 수렴되어 제도화되기 이전에 왜란을 맞이함으로써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되었다. 전 시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부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야만 했던 것이 17세기의 상황이었다.

사상적으로도 16세기에 제기된 과제들이 17세기에 중심 의제가 되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은 16세기에 와서야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성리학이 그것으로, 그들이 이룩한 연구 성과는 사람의 정제 진출과 맞물려 16세기 이후 조선의 사회와 국가를 규제하는 기본 이념으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굳혀가고 있었다. 특히 예학(禮學)과 종법(宗法) 질서 확립의 문제는 사상 자체의 논리를 넘어, 전란으로 인해 사회 기강이 흐트러진 17세기에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²¹⁾

17세기의 지배층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동시에 그들 나름의 사회질서와 정치질서를 수립하여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와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였다. 전란으로 인한 인명의 손실, 전답의 감축과 각종 시설의 파괴는 엄청난 것이었으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재원을 기울여야만 하였다. 또 전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정부·지배층의 무기력과 분열,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그들의 정신적 위축과 지배층으로서의 권위 실추는, 그 뒤 지배체제의 동요, 사회기강의 이완현상으로 직결되었다.²²⁾ 두 전란의 경험은 집권층의 무능력과 부패를 드러냈고, 이를 목도한 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점차 신분제의 동요가 발생하였으며, 신분제의 동요는 집권층에게 있어 자신들의 기득권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다.

또한 전쟁의 체험은 곧 황폐화된 현실로부터 자신의 내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고통을 치유하려는 태도를 낳게 하며, 일상성의 반성과 실존적인 자기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아직 맹아적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쟁 체험으로 인해 새로운 문물과 정치 이념에 대한 요구와 지식인들의 자각이 일어난 시기였

21)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대우학술 총서558, 아카넷, 2003, p.9~11.

22) 김준석, 앞의 책, p.11.

다.²³⁾ 이와 같은 자각과 반성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상하관계의 엄격한 신분 질서를 강조하는 성리학적 지배이념에도 타격을 가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17세기에 이르면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성리학의 지배이념은 욕망이나 정욕의 분출을 금기시하여 인간 감정의 유출은 억제하고 감정의 순수성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두 전쟁은 문학작품 속에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성리학적 지배질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민중의 의식을 일깨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작품을 출현하게 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더욱 활발하게 남녀의 정욕 등 인간의 본능을 대변하는 작품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렇듯 17세기 사회에서 유교적 지배이념에 대한 회의와 개인의 실존 자각은 비록 그 자체가 미미할지라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민중의 자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17세기는 여전히 성리학적 지배이념이 공고하던 시기였다. 전란의 경험으로 민중은 기존 질서에 대한 회의와 반성을 하게 됐다. 그러나 지배층은 더욱 강화한 성리학의 지배이념으로 사회적 동요를 막고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려 했다. 이처럼 당대의 집권층에 있어서 성리학적 지배이념은 17세기 상황에 가장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할 이념이자 대응방식으로 여겨졌다.

즉, 17세기는 성리학적 지배 체계가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여전히 성리학적 전통은 강력한 지배이념으로 조선사회의 근간으로 작용하였다. 사실, 성리학적 지배이념에 대한 회의는 개개인 욕망의 한 지류였을 뿐 당시 사회를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였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리학적 지배이념은 내면화된 가치 틀로서 거의 불변에 가까운 진리였다. 그러므로 전쟁의 체험은 유교적 가치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강조되었던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성리학적 지배이념은 17세기에 가장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할 강력하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이자 법이었다.²⁴⁾

이렇듯 17세기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변수는 성리학적 지배 체제의 강화라는 측면과 그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라는 측면을 낳았다. 이 두 측면은 서로의 역학관계에 의해 당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23) 황윤실, 「17세기 애정전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욕망발현 양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15.

24) 황윤실, 위의 논문, p.16.

하는 것은 이러한 역학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체들의 내적 혹은 외적인 욕망의 현시 양상이다. 성리학적 지배질서의 회회와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사회 상황은 17세기 사회에서의 주체의 욕망 양상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운영전>이 그 배경을 17세기에 두고 있다면 <운영전>에도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그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이 담지 되어 있을 것이다. <운영전>에 나타난 욕망의 현시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세기의 사회상 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체들의 욕망 체계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성리학적 지배질서와 인물들의 욕망 체계

<운영전>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욕망현시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본고의 작품 분석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욕망의 개념과 17세기 성리학적 지배이념에서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양상에 따라 주체의 성격을 본고 나름의 방법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근대 데카르트 이후 칸트,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에 의해 잇달아 제기된 주체 이론은 인간이 모든 것의 근원이요 중심이라는 인간 중심적 사상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구조주의자들은 이러한 인간 주체의 선형성이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 주체를 의미화의 원천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구조, 문화구조, 사회구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²⁵⁾ 즉 주체는 타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존재로 이러한 이론을 펼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라캉이다.

라캉은 주체는 무의식과 언어를 통해 형성된 결과물이라 주장한다. 그는 주체를 불확실하고, 결핍되며,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으로 본다. 그의 주체 형성 이론에 따르면, 이자(二者)관계인 상상적 질서에서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던 아이는 상징적 질서에 진입함으로써 비로소 주체가 될 수 있다. 아버지라는 제3의 타자와 만남으로써, 그 타자의 언술과 법체계와 만나고 이로써 진정한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²⁶⁾ 즉 라캉에 있어 주체는 개인의 의식적 이성적 선택에 의한 소산이

25) 전경갑,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한길사, 1993, pp.159~162.

26) 자크 라캉, 『자크 라캉 욕망 이론』, 권택영 역, 인문사회과학총서, 문예출판사, 1994, pp.11~21.

아니라, 사회와 문화가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라캉의 상상적 질서와 상징적 질서, 두 질서 이론은 주체 생성론의 측면 뿐만 아니라 주체의 존재 구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욕망의 의미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라캉은 욕망을 인간의 본질로 보고 있으며, 욕망을 욕구, 요구, 욕망으로 구분하여 이론화하고 있다. 라캉에 있어 욕구(need)는 자연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대상 소비의 필요성이다. 그러므로 욕구의 경우에는 그것이 추구하는 물질적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의 획득과 소비를 통한 즉각적 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나 라캉에 따르면 요구(demand)는 물질 대상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헤겔의 인정에 대한 욕망이 물질 대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타자로부터 인정(recognition)을 획득하려는 욕망과 같다. 이것이 바로 라캉이 말하는 요구이다. 그러므로 헤겔의 인정 욕망은 라캉의 인정에 대한 요구로 옮겨 놓을 수 있다.

그러나 라캉에 의하면 이 요구는 반드시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적 보상을 요구하며 욕망(desire)은 요구에 의해서만 언어적 표현을 얻는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라캉의 요구가 욕망에의 길을 연다는 주장은, 라캉이 요구에서 욕구를 뺀 차이가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충족을 추구하는 욕구가 언어적 요구로 표현되는 순간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욕망으로 대체되고, 또 다른 욕망 속으로 미끄러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욕망이 충족되지 않고 끊임없이 미끄러진다는 것은 ‘어머니의 모체’와의 분리에 따른 근본적인 ‘결핍’과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욕망에는 결핍이 구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주체의 분열(어머니의 모체와의 분열)에서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에서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그 욕망이 바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며, 타자에 결핍되어 있는 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리하여 타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다.²⁷⁾

지금까지 라캉에 의해 정의된 주체와 욕망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는 본고의 작품 분석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그러나 라캉의 주체이론은 심리적인 국면을 주로 강조한 것이어서, 그 외연을 넓히는 것이 소설 분석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²⁸⁾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라캉의 주체이론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시대적 상황과 관계하여 변화하는 주체를 <운영전>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7) 황윤실, 앞의 논문, p.19.

28) 우찬제, 「욕망현시 소설유형론 연구」, 『한국언어문학』 36, 한국언어문학회, 1996, pp.279~280.

또, 소설을 하나의 거시적 틀에서 보면 주체가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각 인물의 차원에서 보면 모두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물별로 세분화해서 인물 각자가 모두 주체가 된다.²⁹⁾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주체를 주인공에 한정하지 않고 등장인물들 모두를 주체라 볼 것이다.

위의 논의에서 살펴본 언어, 욕망, 주체의 상호관련성과 그 의미작용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적 시각은 17세기 조선의 역사 공간을 서로 다른 변수들이 상호 작용하는 역학적인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17세기는 전쟁이라는 변수로 인하여 성리학의 강화와 그에 대한 반성이라는 이 두 양상들이 한 쪽으로 고착되지 않고 서로 다양하게 얹혀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으로 상정할 수 있다.³⁰⁾ 본고에서는 17세기 시대적 상황을 격변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지배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인식한 주체의 욕망 체계 성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 ①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욕망 체계에 결합되어 있는 인물
- ②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욕망 체계에 결핍을 느끼고 분리되어 있는 인물
- ③ 성리학의 지배이념의 욕망 체계에 결합되어 있다가 결핍을 느끼는 인물
- ④ 성리학의 지배이념의 욕망 체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인물

위에서 주체의 욕망 체계를 결정하는 사항을 17세기 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비추어 분석해 봤다. 소설에서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상징적 질서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담론과 타자와의 관계망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인물, 특히 주동인물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상징적 질서에서 문제를 느끼는 예외적 개인이다. 이 예외적 개인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새로운 상징적 질서를 추구하게 마련인데, 그 추구 정도에 따라서 주체의 성격을 다시 구분해 볼 수 있을 터이다. 또, 인간의 욕망은 그 사회와 문화적 특성을 동시에 관련시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 논문에서는 주체를 <운영전>의 배경이 되는 17세기의 성리학적 지배이념에서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양상에 따라 상징적 주체(象徵的 主體), 상상적 주체(想像的 主體), 탈상징향상상적 주체(脫象徵向想像的主體), 전상징적 주체(前象徵的 主體)³¹⁾ 등으로

29) 임수현, 앞의 논문, p.25

30) 황윤실, 앞의 논문, p.20.

31) '전상징적 주체'는 특이라는 인물의 주체 분류를 위한 필요에 의하여 필자가 설정한 것임. 이 논문에서 '전상징적 주체'란 상징질서인 성리학적 지배질서에 신분적 이유로 편입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마는 주체를 말한다.

나누어 보고자 한다.³²⁾

첫째, 상징적 주체는 라캉이 말하는 본래적 의미에서 욕망의 주체이다. 다시 말해 이 상징적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상징적 질서의 외연을 벗어나지 않는 인물이다. 다만 기존 상징적 질서의 모습을 여러 모순적인 타자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려’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이 ‘보여주기’의 과정에서 현존 상징적 질서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모습을, 독자들로 하여금 재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 상징적 주체를 조선의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따르려는 주체로 사용하기로 한다. 즉 조선의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 안에서 수용하려는 인물을 말한다.

①과 같은 욕망 체계를 보이는 주체는 성리학적 지배이념이 조선사회의 근간으로 법적 질서로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저항하지 않겠다는 주체이다. 이러한 주체는 지배계층으로 자신들이 성리학적 지배이념 아래에서 누리고 있는 권위와 부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주로 사대부 계층이 이에 속하며 그 중심에는 봉건시대의 왕권과 가부장제의 남성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운영전>에서 이러한 권력을 소유하고 표출하는 대표적 주체는 안평대군이다. 안평대군은 남성/여성, 지배자/피지배자의 대립항적 권력 층위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로 <운영전>에 나타나는 상징적 주체이다.

둘째, 상상적 주체는 본래 기존의 상징적 질서 안에서 상징적 주체로 있던 인물들이 자신의 이상과 상상적 합일을 통하여 새롭게 상정한 상징적 질서를 과도하게 추구하여, 그 새로운 상징적 질서 안에서의 욕망 체계와 현실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의 주체는 욕망의 실현이나 사건의 해결이라는 결과를 과도하게 문제 삼는데, 때때로 주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서사적 꺾임성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 다른 말로 하면 환상적 주체라고 할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 본 ②와 같은 욕망 체계를 보이는 주체는 성리학적 지배이념에 회의를 품고 저항하려는 주체이다. 앞서서도 말했던 바와 같이 소설 속의 인물은 자신이 처한 상징적 질서에 결핍을 느끼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한다. 이러한 주체는 자신이 놓인 사회적 모순 즉, 성리학적 지배 체제의 모순을 직시하고 이에 대항하려 한다. 이러한 욕망은 지배계층에게 억눌렸던 피지배계층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성리학적 지배이념에서 타자로 놓여 있었던 여성, 천민, 서자 등이 이러한 주체를 이루리라고 본다. 즉, 이 주체는 조선의 상징적 질서로 작용하는 성리학

32) 우찬제, 앞의 책, p. 286.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찬제의 주체 분류를 따르고 있음을 밝힌다.

적 지배이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운영이 속한다. 운영은 수성궁으로 대표되는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중심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저항한다. 운영이 유교적 덕목을 끝까지 실천하려는 한계를 보이지만 상상적 주체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하든바 운영을 미흡한 상상적 주체로 보고자 한다.

셋째 탈상징향상상적 주체는 상상적 주체와 상징적 주체의 경계선에 있는 한계적 주체이다. 이 주체는 상징적 주체처럼 상징적 질서의 규율에 놓여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그 규율에서 벗어나고자 애쓴다. 기존의 상징적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징적 질서를 구성하고 추구하되, 기존 상징적 질서의 현실적인 위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적 주체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의 모순과 부조리함을 대면하고 변화의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끝내는 현실 그 자체를 수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들은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규범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만 끝내는 벗어나지 못하고 포기하여 다시 ‘상징적 지배 질서’에 안주하는 주체를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③의 욕망 체계를 가진 주체가 이에 속한다.

③과 같은 욕망 체계를 가진 주체는 기존질서에 회의를 품지만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성리학적 지배이념이 바뀔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순응하고 그 질서에서도 피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로 김진사와 유영을 들 수 있다. 김진사는 운영과의 애정성취를 원하고 이러한 인간 본연의 성정이 억압 받는 사회적 모순을 느끼고 기존질서에 회의를 품게 되지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다.

또 유영은 기존질서에 회의를 품지만 자신의 미약함에 좌절하고 그 저항력을 잃어버리는 주체다. 이 주체는 상징질서의 부조리와 모순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질서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그리고 저항의 의지력 자체도 상실하면서 불안한 주체를 형성하게 된다.

넷째 전상징적 주체는 상징 질서인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로부터 소외 혹은 외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는 지배계층인 사대부에게 입신양명과 부귀공명을 추구할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하지만 피지배계층에게는 지배계층을 보호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당화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성리학적 지배질서는 충과 효를 민중들에게 주입하여 유순하게 길들여지도록 할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민중을 소외시키고 있었다.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덕목인 입신양명과 부귀공명 등에서는 피지배계층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그저 충과 효만을 강조하여 통치의 이념으로써 활용한 것이다.

즉, 전상징적 주체는 피지배계층이기 때문에 성리학적 지배질서에서 소외됨으로 인해 완전히 상징질서에 편입하지 못한 주체를 말한다. 이 전상징적 주체는 상징질서에 편입하고 싶지만 그 신분적 한계로 말미암아 편입이 거부되는 소외를 겪는 주체인 것이다. 또 전상징적 주체는 상징질서인 성리학적 지배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숙명론적 구습과 패배의식에 길들여져 온 탓에 진정한 결핍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욕망은 욕구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 본 ④의 욕망 체계를 가진 주체가 이에 속한다.

<운영전>의 인물 중 ④와 같은 욕망 체계를 가진 주체로 ‘특’을 들 수 있다. 특은 김진사의 외거 노비로 피지배계층의 전형으로 등장한다. 조선시대의 피지배계층들은 지배계층의 삶을 동경하고 욕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 또한 지배계층의 이념인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에 편입되길 욕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적 한계로 인하여 넘어설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소외된 피해의식이 물욕의 추구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면모를 보인다.

이상의 네 가지 주체 분류는 17세기 시대 상황에서 주체 내부의 움직임에 포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운영전>의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고소설의 인물들이 갖는 전형적 성격을 이탈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물들의 성격과 욕망의 추구 양상은 인간의 ‘욕망’을 계층·신분·성별 등에 따라 이미 주어진 것이라 여겼던 중세적 사고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운영전>의 인물들은 욕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욕망하거나,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는 인물들이며 바로 그 점에서 전형성을 벗어나 있다. 또 그들의 욕망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되어 있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생동하는 불안정한 욕망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욕망의 양상과 인물의 현실대응방식은 인물 개개인의 성격에 국한되기보다는 인물의 욕망을 억압하고 추동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운영전>에서 서로 다른 인물들이 갈망하는 욕망의 지향점은 순조로운 화해에 이르지 못하며,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을 추동하는 타자간의 끊임없이 길항하는 역동적 관계는 <운영전>을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긴장감 있는 서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³³⁾ 위에서 나누어 본 주체 분류와 끊임없이 결핍을 메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토대로 Ⅲ장에서는 <운영전>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욕망이 어떻게 현시되는가를 살펴보겠다.

33) 박경민, 앞의 논문, p.13

Ⅲ. 등장인물들의 욕망현시 양상

1. 운영, 想像的 主體의 未洽

1) 자아에 대한 각성과 상상적 주체 추구의 욕망

<운영전>에 등장하는 운영은 어려서 궁중에 들어오게 되었고, 안평대군 사저의 궁녀로서 생활하게 된다. 궁녀는 궁중의 잡다한 일을 도맡은 특수계층의 여성들로서 폐쇄적인 생활을 하였다.³⁴⁾ 운영은 사궁에 거처하는 궁녀로서 안평대군 일 개인에게 예속된 열 명의 궁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예전에 무산의 신녀가 한 통의 편지를 전해 주기에 받아 보니, 옥처럼 낭랑한 목소리가 종이 가득히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공손히 받들어 세 번을 되풀이 읽으니, 슬픔과 기쁨이 번갈아 이르러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답장을 쓰고 싶었으나 이미 믿고 편지를 전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누설될까 두려워 고개를 늘이고 먼 곳만 바라볼 뿐, 날아가고자 해도 날개가 없으니 애는 끊어지는 듯하고 님은 나간 듯했습니다. 단지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죽기 전에 이 편지로나마 제 평생의 회한을 다 털어놓고자 하니, 낭군은 유의하시길 오히려 바라나이다. 제 고향은 남쪽 지방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여러 자식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시어 제 마음대로 밖에 나가 놀거나 장난하게 두셨습니다. 저는 숲 속과 시냇가를 돌아다니며 매화 · 대나무 · 굴나무 · 유자나무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노니는 것으로 일을 삼았습니다. 이끼 낀 냇가에서 낚시하는 무리들과 풀 먹이기를 마치고 피리 부는 목동들을 아침저녁으로 보았으며, 그 밖의 산과 들의 모습, 농촌의 흥취 등은 머리털처럼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처음에 삼강행실과 칠언당음을 가르치셨는데, 13세가 되어 주군이 부르신 까닭에 부모님을 이별하고, 형제를 멀리한 채 궁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 매일 흐트러진 머리와 때묻은 얼굴을 하

34) 박경민, 위의 논문, p.61.

고 남루한 옷을 입어, 보는 사람이 더럽게 여기도록 했습니다. 제가 뜰에 엎드려 우니, 궁인들이 ‘한 떨기 연꽃이 저절로 뜰 가운데서 피었구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주군도 저를 심상하게 보지 않으시니, 궁 중 사람들 가운데 저를 골육처럼 친애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³⁵⁾

운영은 13살에 상징질서인 궁에 들어오게 되면서 부모와 떨어지게 된다. 궁녀는 조선시대의 유일한 관직여성이었지만, 궁녀가 된 순간부터는 여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포기해야만 했다. 일단 궁에 들어오면 궁녀들은 늙고 병들기 전까지는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다만 모시던 상전이 승하하였을 경우나 병이 들었을 때만 궁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여자로서 관직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던 만큼 궁녀가 되기는 쉽지 않았다. 보통 궁녀는 10년에 한 번씩 뽑았는데 중간 계층의 4~10세 사이의 아이 가운데 상궁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궁하였다. 궁녀가 되려면 집안에 죄인이 없어야하고, 근친 가운데 돌림병이나 유전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야 했다. 또한 처녀만 궁녀가 될 수 있었고, 어린아이를 뽑은 것은 일찍부터 데려다가 궁녀로서의 교양을 쌓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보통 ‘새앙각시’라고 불렸으며 상당한 기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정식 궁녀가 될 수 있었다.³⁶⁾ 운영이 궁녀가 된 것은 운영의 집안으로서는 영광된 일일는지 모르나 운영 자신에게는 불행의 시작인 것이다.

갑작스러운 부모 형제들과의 이별은 그녀에게 궁을 억압과 폭력의 장소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부적응을 초래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상상계라 할 수 있는 궁 밖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더럽게 보이고 미친 척 하지만 곧 궁 안의 세계에 적응하게 된다. 이는 궁 안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골육과 같이 대하고 특히 “대군의 부인은 저를 사랑하시기를 기출(己出)과 다름없이 해주셨으며 대군도 보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군과 대군의 부인이 자신을 친 혈육처럼 대하여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운영은 상상적 질서에서 궁이라는 상징적 질서로 들어서게 되면서 부모님과과의 이별이라는 결핍을 메워줄 대상으로 대군과 대군

35) 曩者, 巫山神女, 傳致一札, 琅琅玉音, 滿紙丁寧. 敬奉三復, 悲歡交至, 意不自定. 卽欲答書, 而既無信便. 且恐漏泄, 引領懸望, 欲飛無翼, 斷腸消魂. 只待死日, 而未死之前, 憑此尺素, 吐盡平生之懷, 伏願郎君留神焉. 妾鄉南方也, 父母愛妾, 偏於諸子中, 出遊嬉戲, 姪其所欲. 園林溪水之涯, 梅竹橘柚之蔭, 日以遊翫爲事. 苔磯釣漁之徒, 罷牧弄笛之兒, 朝暮入眼. 其他山野之態, 田家之興, 難以毛舉. 父母初教以三綱行實, 七言唐音. 年十三, 主君招之, 故別父母, 遠兄弟, 來入宮門. 不禁思歸之情, 日以蓬頭垢面, 藍縷儀裳, 欲爲觀者之陋, 伏庭而泣. 宮人曰: “有一朵蓮花, 自生庭中.” 夫人愛之, 無異己出. 主君亦不以尋常視之. 宮中之人, 莫不親愛如骨肉.

36)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1987, 제1장.

의 부인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핍을 운영은 대군에게서 충족하려 했고, 안평대군의 높은 성정을 바라 보며 대군에 대한 존경과 숭배로 발전하게 된다. 운영은 자신의 우상으로 자리 잡은 안평대군의 모습을 선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평대군에 대한 존경과 숭배는 궁궐의 주인과 궁녀라는 관계가 아버지와 딸이라는 근친상간적 관계로 비춰지면서 무의식에 의해 부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녀는 어린나이에 부모와 이별하여 대군을 아버지와 같이 여기게 됨으로써 궁주와 궁녀의 관계가 아닌 혈연관계로 여기게 된 것이다. 운영 스스로의 안평대군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딸의 관계(근친상간의 관계)로 설정해 둠으로써,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관계를 강력히 부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소옥이 저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부연시로 주군의 의심을 받게 된 것이 은근히 걱정되어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주군이 나와 비단 자리에서 사랑의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좋아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 네가 가슴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³⁷⁾

“내일 운영이 반드시 사내를 만날 것이다. 운영이 용모와 행동이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닌 듯해서 주군이 마음을 기울이신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러나 운영이 죽기로써 거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차마 부인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군의 명령이 비록 엄하시나 주군도 운영의 몸이 상할까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었다. 지금 이처럼 적막한 곳에 살면서 저렇듯이 변화한 곳에 가려고 하는데, 만약 놀기 좋아하는 소년이 운영의 자색을 본다면 반드시 정신을 잃고 미치려 할 것이다. 비록 서로 가까이는 할 수 없더라도 손가락으로 점찍어 두고 눈길을 보내는 것 역시 욕되는 일이다. 지난번에 주군이 ‘궁녀가 궁문을 나가거나 궁궐 밖의 사람이 그 이름만 알게 되어도 그 죄로 다 죽이겠다’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³⁸⁾

일찍이 대군은 저에게 마음 둔 적이 없었으나, 궁중 사람들은 모두 대군이 저에게

37) 小玉顧見妾曰, “日間賦烟之詩, 見疑於主君, 以此隱憂而不語乎? 抑主君向意, 當有錦衾之歡, 故暗喜而不語乎? 汝心所懷, 未可知也.”

38) “明日, 雲英必遇丈夫矣. 雲英容貌舉止, 似非人世間者也. 主君傾心已久, 而雲英以死拒之, 無他故矣, 不忍負夫人之恩也. 主君之威令雖嚴, 而恐傷雲英之身, 故不敢近之. 今舍此寂寞之處, 而欲往彼繁華之地, 遊俠少年見其色, 則必有喪魂欲狂者. 雖不能相近, 而指點送目, 斯亦辱矣. 前日, 主君下令曰: “宮女出門, 外人之名, 其罪皆死.” 今此之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시다.³⁹⁾

위 글에서 보면 안평대군이 운영에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감정은 주변 사람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운영은 남들이 모두 알고 있는 안평대군의 감정을 모른 채한다. 운영이 안평대군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은 차마 대군부인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데에는 무의식적으로 안평대군과의 관계를 근친상간이라는 금기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은 이러한 이유로 하여 대군이 그녀에게 뜻이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강하게 부정한다. 안평대군과의 관계를 근친상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운영의 무의식에 잠재된 여성성은 결핍된다. 이러한 결핍이 계속되고 외로움이 더해질 때, 그녀의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은 학문으로 방향을 돌린다. 대군의 가르침 아래 학문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자 하였지만 지식세계에 눈뜨게 된 운영은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욕망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는 헤겔의 유명한 명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 한다’는 인간의 욕망은 무엇보다도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타자에 의해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즉, 욕망의 핵심은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리고 싶어 하는 데 있다. 욕망의 변증법에 대한 라캉의 이해는 바로 헤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욕망의 움직임에 의하여 인간은 욕망의 주체로서 욕망의 대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인정을 통하여 자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욕망이 욕구나 본능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생리적 매커니즘에 의한 개체적 발생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 놓인 주체적 발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욕망은 자기 정체성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자아형성은 욕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욕망을 지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너’를 주체와 타자로 인식해 나감으로써 역설적으로 ‘나’라는 자아를 구체화시킨다.⁴⁰⁾ 결국 주체의 욕망은 사회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으로서 사회적 진출이 억압된 그녀에게 학문의 수련은 그저 안평대군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뿐 자신의 사회적 욕망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에의 욕망은 충족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다음의 편지 글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39) 大君未嘗有私於妾, 而宮中之人, 皆知大君之意, 在於妾也.

40) 손 호머, 『라캉 읽기』, 김서영 역, 정신분석과 미학 총서2, 은행나무, 2006, pp.49~51.

“... 또 한 번 학문에 종사하게 된 이후부터는 자못 의리를 알고 음률을 살필 수 있게 된 까닭에 궁인들이 모두 저에게 경복하였습니다. 서궁으로 옮긴 뒤에는 거문고와 서예만을 오로지 하여 조예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릇 빈객들이 지은 시들은 하나도 눈에 들지 않았으니, 재주가 성하게 되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되어 입신양명하지 못하고, 홍안박명의 몸이 되어 깊은 궁궐에 한 번 갇힌 뒤 마침내 고목처럼 썩게 된 것을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누가 다시 알아주겠습니까? 이 때문에 한이 마음속에 맺히고, 원망이 가슴의 바다를 메웠습니다. 매번 수를 놓다가 멈추고 등불을 바라보았으며, 비단을 짜다가도 북을 던지고 베틀에서 내려와 비단 취장을 찢거나 옥비녀를 꺾어버리곤 하였습니다. 잠시 술을 마시고 흥이 나면 신발을 벗고 산보를 했으며, 섬들의 꽃도 떨어뜨리고 뜰의 풀도 꺾으면서 바보나 미치광이처럼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가을밤에, 한 번 그대의 용모를 보고는 마음속으로 천상의 신선이 속세에 적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⁴¹⁾

위 글에서 운영은 감정의 변화를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한 행동까지 일삼는다.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운영의 이 같은 모습은 사실 극도의 한스러움에서 오는 정신적 희열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미처 느껴보지 못한 자의식을 통한 감정의 복받침인 것이다.⁴²⁾ 운영은 갑작스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한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글을 깨우치고 나아가게 되면서 자신이 남자로 태어나지 못함을 한탄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는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 안에서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참여의 제한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욕망이 좌절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영이 민감하게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의식하게 된 데에는 그녀의 학문적 소양 외에도 김진사와의 사랑이라는 애정 성취 욕망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수성궁에 들어와서 4년 동안 바깥출입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억압과 고독의 세월을 보낸 운영은 김진사를 만나 사랑하게 됨으로써 자신도 인간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부자유한 처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사회에서 금기된 욕망이 꿈으로 나타나 꿈의 내용이 압축되어 어떤

41) 一自從事學問之後，頗知義理，能審音律，故宮人莫不敬服。及徙西宮之後，琴書專一，所造益深。凡賓客所製之詩，無一掛眼，才難不其然乎！恨不得爲男，立身揚名，而爲紅顏薄命之軀，一閉深宮，終成枯落而已，豈不哀哉！人生一死之後，誰復知之。是以恨結心曲，怨填胸海。每停刺繡，而付之燈火，罷織錦，而投杼下機，裂破罷幃，折其玉簪。暫得酒興，則脫爲散步，剝落階花，手折庭草，如癡如狂，情不自抑。上年秋月之夜，一見君子之容儀，意謂天上神仙，謫下塵寰。

42) 정한국,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본 <운영전>」,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p.278.

물건이나 이미지로 바뀌는 대체, 또 옆의 것과 자리를 바꾸는 인접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은유’는 대체요, ‘환유’는 인접성이다. 은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완벽한 반영이라고 믿는 이상적 자아, 어머니 혹은 대상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리라 믿고 자아가 대상의 남근이라고 믿는 ‘상상계’이다. 거울 단계를 지난 주체는 아버지의 질서인 언어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이 상상계적 믿음이 잘못임을 안다. 이러한 상징계의 어긋남이 ‘환유’이다. 라캉은 주체가 상상계와 상징계로 이루어진 것은 은유와 환유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말이므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언어는 은유와 환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되찾을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욕망이 ‘인접성’을 가지는 ‘환유’의 상황으로 전이된 것이다.⁴³⁾ 군신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의 관계로 받아들이게 된 운영은 안평대군을 아버지라 느끼게 되었고, 그녀의 욕망은 안평대군을 닮은 김진사에게로 미끄러지게 된다.

안평대군과 운영 사이의 애정이 부모자식 간의 애정, 보호자로서의 애정, 상관으로서의 애정 등 복합적인 애착 관계에서 형성되어 남녀관계로의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반면 김진사와 운영은 동물적이고 반사적인 끌림에 의해 이루어지는 애로 틈한 남녀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다.

운영과 김진사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반하는데 이러한 심리 현상에 대하여 융(Jung)은 모든 남성의 내면에 이브(Eve)를 가지고 있듯이 여성의 내심에 아담(Adam)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심리적 구조는 인간이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이성으로 지배될 수 없는 것이다.⁴⁴⁾ 다시 말하면 운영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리던 아담을 만난 것이다.

운영은 자신의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남성인 김진사의 구애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히려 운영이 먼저 적극적으로 김진사에 대한 애정을 구함으로써 사랑을 성취하게 된다. 김진사와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운영은 김진사를 사랑하게 된 자신의 내면적 동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한다.

진사는 나이 어린 유생으로 말석에 앉았는데, 내실과는 단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밤이 이윽히 깊어감에 따라 못 손님들은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벽에 구멍을 뚫고 방안을 엿보니, 진사도 제 마음을 알고 구석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저는 봉한 편지를 구멍으로 던지자, 진사는 편지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사는 제 편지를 뜯어보고는 슬픈 마음을 견디기 어려워 차마 편지를

43) 자크라캉, 앞의 책, pp.18~19.

44) 문상기, 「운영전고」, 『부산한문학 연구』 1, 부산한문학회, 1985, p.11.

손에서 놓지 못하였으며, 사념의 정이 예전보다 두 배나 더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울 듯했습니다. 즉시 답장을 부치고자 했으나 믿고 보낼만한 청조가 없는 터라, 홀로 근심하고 탄식할 따름이었습니다.⁴⁵⁾

그래서 급기야 운영은 대군의 술잔치 때 벽을 뚫어 김진사를 본 느낌을 시로 적어 금비녀 한 쌍과 함께 편지에 봉해서 김진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벽을 뚫고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억압된 욕망을 가슴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운영의 이러한 행동은 대담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이다. 만약 실수로 편지가 발각된다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었다.

편지를 쓴다는 행위는 자신의 내적 고백을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편지의 언어는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행동의 고백이나 정신적 경험의 강조에 유익한 것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편지의 언어는 주로 내면적 감정이나 정서, 비밀의 고백, 자기변명 등의 내용을 담는다. 운영은 편지를 전하여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김진사에게 알리려고 노력한다. 편지를 전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려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소혜왕후는 중국 북송시대 이천선생의 어머니 후부인이 여성들이 문장이며 편지를 써서 남들과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보고서는 몹시 옳지 않은 행위로 여겼다는 예화를 소개하면서 조선의 여성들도 이를 본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들끼리의 편지 왕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당시의 사고에 비추어볼 때, 이성간의 편지 왕래는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궁녀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것은 당시 사회 통념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단행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여 나름대로의 위험마저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는 이미 억압된 욕망의 표출이다. 정(情) 보다는 성(性)이 강조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45) 進士以年少儒生，坐於末席，與內只隔一壁。夜已將闌，衆賓大醉。妾穴壁作孔而窺之，進士亦知其意，向隅而坐。妾以封書，從穴投之，進士拾得歸家，拆而視之，悲不自勝，不忍釋手，思念之情，倍於曩時，如不能自存。即欲答書以寄，而青鳥無憑，獨自愁歎而已。

는 삭여내는 것이 미덕이었던 조선조의 사회적 분위기는 특히 여성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고 기존 질서를 내면화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쳤다.⁴⁶⁾ 그런데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해 인식하고, 억압된 자신의 욕망을 문제 삼은 운영은 당대 규범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항상 남성의 타자로 존재하거나 주변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상황에서 운영은 자신의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하고 행동함으로써, 주변부에 머무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나아가고자 피하는 당당한 여성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서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한 것은 죽음보다도 김진사와의 사랑이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랑을 이루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운영은 대담한 행동으로 사랑을 갈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강한 의지이며 집념의 표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전기소설의 여성 인물들과 운영이 분명하게 차별되는 점이다. 다른 전기소설의 여주인공들은 적극적이고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상은 한 번도 먼저 자신의 욕망을 나타내거나 행동에 옮기지 않으며, 단지 남성들의 주도권 안에서만 행동할 뿐이다. 결국 이 여성 인물들은 진정한 욕망의 주체라기보다는 남성 문사들의 욕망이 투사된 대상으로서, 남성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러나 운영은 자신의 학문을 통한 깨달음과 김진사와의 사랑을 통해 자아와 세계 사이에 균열이 생김으로써 이제껏 안평대군이라는 왕권을 매우 순종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자신의 처지와 상징질서의 폭력을 자각하게 된다. 또 자신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의식을 자각하고 안평대군으로 대표되는 상징질서의 폭력이 구속과 모순에 차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이라 믿었던 상징질서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의미한다. 운영의 이러한 자아 각성과 상징질서의 변화에 대한 자각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상상적 주체’로의 변모를 보이고 있다.

46) 조혜란, 「고전 여성 산문작가의 문학세계」,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p.374.

2) 주체의 인식 미달과 타자에의 종속

안평대군 사궁의 궁녀들이 인간적인 애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깊은 궁궐 속에서 젊음을 억누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한탄하며, 자유로운 애정표출을 기대하는 동시에 신분에 따른 구속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는 대목은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임란 이후의 당대 현실의 모순 속에서 여성계층이 어느 정도 자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하며, 유교윤리에 입각한 남성 위주 사회의 모순에 대한 여성계층의 자각 내지는 사회의식의 변화를 반영해주는 현상이다.

자란이 운영의 의향을 떠보는 가운데 표현한 자신의 심정 술회에는 사궁에 갇혀 모든 것을 구속받고 있는 것에 대한 한탄과 그러한 모순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집가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 있다. 네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얼굴이 날마다 점점 여위어 가고 있다. 이것이 염려되어 진정으로 못는 것이니, 모름지기 숨기지 않길 바란다.”⁴⁷⁾

“내가 듣기로, 소격서동은 곧 옥황상제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서 동네 이름을 삼청이라 했다고 한다. 우리들 열 사람은 틀림없이 삼청군의 선녀였는데 황정경을 잘못 읽고 인간 세계에 적당했을 것이다. 이미 속세에 살게 되었으니 산가나 야촌, 농촌이나 어촌 등 어느 곳인들 불가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지금 깊은 궁중에 꿈쩍없이 갇혀 새장 속의 새처럼 있으면서 누런 찌꼬리 소리를 들으면 탄식하고, 푸른 버들을 대하면 흐느끼곤 한다. 심지어 어린 제비도 쌍쌍이 날고 새집에 깃든 새도 두 마리가 함께 잠들며, 풀 가운데는 합환초가 있고 나무 중에도 연리지가 있다. 무지한 초목과 지극히 미천한 새들도 음양을 품수하여 즐거움을 나누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우리 열 사람은 유독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적막한 심궁에 오래도록 갇혀 어 꽃 히는 봄과 달 뜨는 가을에 등불만 베풀면서 혼을 사르고, 청춘을 헛되이 버리면서 공연히 저승의 한만 남기고 있다. 타고난 운명의 야박함이 어찌 이렇듯 심하리오? 인생은 한 번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 없는 것이니, 너는 다시 생각해 보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내가 소격서동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맑은 냇물에서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한 뒤에 태을사에 들어가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고 또

47) “女子生而願爲有嫁之心，人皆有之。汝之所思，未知何許情人，悶汝之形容，日漸減舊，以情憫問之，妾須毋隱。”

두 손을 모아 기도하여,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부처의 보살핌에 힘입어 내세에는 이러한 고통을 면하고자 함이다....(중략)”⁴⁸⁾

이러한 궁녀들이 자유에 대한 구가와 자유로운 욕정표현에 대한 갈구, 여성의식에 대한 자각 등은 대립인물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단지 의견 표출에 머물고 말며, 내세를 기약하거나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런데 운영은 자신의 박탈감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게 된 김진사의 단아한 모습을 보고 사랑의 감정에 빠지게 된다. 궁녀의 삶을 처음부터 거부한 운영은 김진사를 보고 궁 밖의 ‘상상 세계’를 선망하게 된다.⁴⁹⁾ 이러한 사랑의 감정은 운영에게 자신의 처지를 새삼 실감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상징적 질서의 모순을 느끼고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표출된 것이다.

운영은 처음부터 궁궐로 들어오는 것에 회의를 가진 여성이었다. 다만 중세 봉건사회에서 왕권의 힘에 억눌려 닫힌 궁 안의 세계 속에 머물러야만 하였다. 그녀는 궁에 들어오기 이전의 궁 밖의 세상을 꿈꾸고 있다. 이미 경험한 자유를 궁궐이라는 상징질서에 갇혀 자유로운 생활을 참아야만 한다는 사실은 운영에게 폭력이 되었다. 그녀는 항상 마음속으로 궁 안의 상징질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궁 안이라는 폐쇄된 상징질서를 따를 수가 없었다. 더욱이 궁 안에서의 생활은 여성성을 박탈당한 채 안평대군의 지시에 따라 학업에만 열중해야 했으므로 더욱 운영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운영은 김진사와의 애정을 성취하고자 함으로써 당대의 지배 권력에 도전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징적 질서인 궁궐을 벗어나 인간 본연의 성정과 여성성이 보장되는 상상 질서로 향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궁녀와 궁 밖의 선비와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김진사와의 사랑을 감행했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한다. 사랑을 선택하느냐, 사회의 질서를 선택하느냐

48) “吾聞昭格署洞，乃祭天星之處，而洞名三清云。吾徒十人，必是三清仙女，誤讀黃庭經，謫下人間。既在塵寰，則山家野村，農墅漁店，何處不可？而牢鎖深宮，有若籠中之鳥，聞黃鸝而歎息，對綠楊而歔歔。至於乳燕雙飛，栖鳥兩眠，草有合歡，木有連理，無知草木，至微禽鳥，亦稟陰陽，莫不交歡。吾儕十人，獨有何罪，而寂寞深宮，長鎖一身，春花秋月，伴燈消魂，虛拋青春之年，空遺黃壤之恨，賦命之薄，何其至此之甚耶！人生一老，不可復少，子更思之，寧不悲哉！今可沐浴於清川，以潔其身，入于太乙祠，扣頭百拜，合手祈祝，冀資冥佑，欲免來世之此若也。

49) 황윤실, 앞의 논문, p.84.

하는 갈림길에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세 봉건적 성리학적 이념은 운영과 김진사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아 구속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정신적 자유와 욕망을 구속할 수는 없었다. 운영과 김진사의 인간적 욕망은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김진사와의 사랑을 지속시키려는 무모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김진사에게 월장하여 궁 안으로 몰래 들어오게 함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뿐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궁 밖으로 빼돌려 김진사와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인 모든 행동을 동원한다.

이처럼 운영은 미모와 재주만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이지적이고 신념이 강한 여인이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김진사에게 충고를 해주고 계교를 일러주는 총명한 여인이다. 김진사는 연소한 유생으로 재주는 있으나 매우 소극적이고 무능한 양반 자제의 전형이다. 그는 운영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탈출을 종용하고, 자란의 냉철한 충고에 그저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인물이다.

이에 비해 운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모험적 행동까지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기는 대담한 여인이다. 그러나 운영의 지혜와 용기로도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궁녀라는 신분은 오히려 기녀의 신분보다도 더 자유롭지 못한 절망적인 신분이었다. 운영은 여자로 태어난 것, 궁녀가 된 것, 그리고 김진사라는 외부인과 사랑에 빠지는 장애를 초월할 수 없었다.

이러한 운영의 굴복은 운영에게 궁궐에서 도망갈 계획을 포기하게 하는 자란의 설득과 운영의 초사에서 운영이 가진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저항에 나타난 한계성을 보여준다.

자란이 크게 놀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즐긴 지 오래 되어서 이제 스스로 화를 빨리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 2개월 서로 사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차마 담을 넘어 달아나는 것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주군이 너에게 마음을 기울으신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첫째 이유요, 부인이 사랑하심이 매우 깊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둘째 이유요, 화가 양친에게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셋째 이유요, 죄가 서궁 사람들에게 까지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넷째 이유이다. 게다가 천지가 곧 하나의 그물인데, 하늘로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달아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혹시 붙잡히게 된다면 그 화가 어찌 네 한 몸에만

그치겠느냐? 꿈의 징조가 상서롭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꿈이 길조였다면 너는 기꺼이 가려 했더냐? 네가 할 일은 마음을 굳히고 뜻을 억누르며, 정절을 지키고 편안히 앉아서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네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주군의 은혜와 사랑이 점차 느슨해 질 것이다. 이러한 형편을 보고 있다가 청병하고 오래도록 누워 있으면, 주군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다. 이때 낭군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 백년해로 하는 것 보다 좋은 계획이 없으리라.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감히 도리에 어긋난 꾀를 내니, 네가 누구를 속이며 하늘마저 속이려 하느냐?”⁵⁰⁾

“주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정절을 고수하지 못한 것이 저의 첫 번째 죄입니다. 지난날 제가 지은 시가 주군께 의심의심을 받게 되었는데도 끝내 사실대로 아뢰지 못한 것이 저의 두 번째 죄입니다. 죄 없는 서궁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입게 된 것이 저의 세 번째 죄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큰 죄를 짓고서 무슨 면목으로 살겠습니까? 만약 죽음을 늦춰 주실 지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 할 것입니다. 처분만 기다립니다.”⁵¹⁾

운영은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억압된 궁궐의 상징질서로부터 벗어나길 바라고 벗어나고자 행동한다. 그러나 운영은 죽음 직전까지도 대군과 부인에 대한 도리를 지키지 못한 불충에 대해 자책하였다. 그리고 현실적 윤리의식의 굴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자신의 도덕성과 애정의 실현을 위해 현실에 저항하면서도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양가적인 인물로 형상화 된다.

운영은 학문을 함으로써 조금씩 자아를 각성하기 시작하였고, 사랑을 통해 인간 본연의 성정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안평대군에게 발각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한 채 자살하고 만다.

운영의 죽음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궤절에 대한 죄책감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써 대군과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억압에 저항한 것이다. <운영전>의 전편에 흐르는 남녀정욕

50) 紫鸞大驚，罵之曰：“相歡日久，無乃自速禍敗耶！一兩月相交，亦可足矣，踰牆逃走，豈人之所忍爲也？主君之傾意已久，其不可去一也。夫人之慈恤甚重，其不可去二也。禍及兩親，其不可去三也。罪及西宮，其不可去四也。且天地一網罟，非墜天入地，則逃之焉往。倘或被捉，則其禍豈止於子之身乎？夢兆之不祥，不順言之，而若或吉祥，則汝肯往之乎？莫如屈心抑志，守貞安坐，以聽於天耳。娘子若年貌衰謝，則主君之恩眷漸弛矣。觀其事勢，稱病久臥，則必許還鄉矣。當此之時，與郎君携手同歸，與之偕老，計莫大焉，不此之思耶。當此之計，汝雖欺人，敢欺天乎？”

51) “主君之恩，如山如海，而不能苦守貞節，其罪一也。前日所製之時，見疑於主君，而終不直告，其罪二也。西宮無罪之人，以妾之故，同被其罪，其罪三也。負此三大罪，生亦何顏？若或緩死，妾當自決，以待處分矣。”

에 대한 옹호와, 운영과 김진사의 과거사에 대한 회고적 정서가 자신들의 사랑이 비극적 결말을 맺은 것에 대한 원한임을 볼 때 운영의 죽음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옹호하고 대군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하다.⁵²⁾ 비록 운영의 저항이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성정을 억압하는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에 직접 맞서 싸운 것은 아니지만 그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성취하려 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운영은 당대의 지배질서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왕권에 도전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 노력이 미약한 몸부림에 불과하였고, 죽음이라는 미약한 저항으로 나타나지만 운영의 노력은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에서 여성 주체 확립의 진일보된 면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운영이 현실에 저항하면서도 현실의 질서를 실천하려는 이율배반적인 한계적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상상적 주체’에 근접하려한 점에 무게를 두어 운영을 미흡한 상상적 주체로 보았다.

2. 김진사와 유영, 脫象徵向想像의 主體의 喪失

1) 상상 속의 대타자에 대한 욕망

거울 단계를 지난 주체가 아버지의 질서인 언어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상상계적 믿음이 잘못임을 알게 되고, 이러한 상징계의 어긋남이 환유로 대입된다. 프로이트는 사회에서 금기된 욕망이 꿈으로 나타나 꿈의 내용이 압축되어 어떤 물건이나 이미지로 바뀌는 대체 또는 옆의 것과 자리를 바꾸는 인접성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여기서의 대체는 ‘은유’이며, 인접성은 ‘환유’인 것이다. 그리고 “말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향하고 타인에는 구체적인 실제 타인이 아닌 추상적인 타인인 대타자(Other)가 포함되어 있다.”⁵³⁾ 대타자는 특정 인물이 아닌 추상적인 타자로 상상

52) 이병직, 「〈운영전〉의 성 억압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21, 한국문학회, 1997, p.100.

53) 문효상, 앞의 논문, p.33~34.

속 혹은 무의식 속의 미지의 타자(unknown other)를 말한다.

<운영전>의 등장인물들은 제각기 독특한 인물들이다. 이 인물들 중 김진사와 유영은 17세기 이후의 신분변동에 따라 몰락해 가는 사대부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불우한 배경 묘사와 함께 유영에게서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 사회와 화합하지 못하고 다른 이상을 욕망하는 그들은 각기 이상적인 모습을 역사 속의 실존 인물에서 찾고 있다.

김진사의 경우에는 현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이 거의 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지만 그의 문풍에서 그가 자유를 추구하고 성리학적 지배이념과 다른 사유를 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게 한다. 그의 이러한 문풍과 사고는 그가 익힌 학문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선인들의 삶을 꿈꾸는 그의 욕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유영의 경우 액자 밖의 인물로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큰 인물이다. 안평대군이 살았을 때를 ‘성시지사’라 칭하며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다. 유영에게 있어 안평대군은 학문적 소양과 인품을 두루 갖추고 문인들을 존중하며 아껴 주었던 인물로 그의 불우한 처지와 대조를 이루며 ‘성시지사’를 이끈 이상적 인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1) 김진사

김진사는 운영이 처음 그를 보자마자 반할 정도로 수려한 외모와 풍채를 지니고 있으며, 14세에 진사에 급제하고 뛰어난 시재(詩才)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수재이다. 그러나 그는 사대부의 지위와 재능을 가지고 중세적 지배체제에 결합하려하지 않고 중세적 이념이 갖는 모순을 인식하고 중세적 애정 윤리를 초월하려 하는 일탈적 존재이다. 이러한 사대부적 세계에서의 일탈적 존재로서 김진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그의 시관을 통해 드러난다. 김진사는 안평대군이 옛적 시인 중에 누가 가장 으뜸이냐고 묻는 물음에 이백과 맹호연, 이상은을 든다.

진사가 대답했지.

“제 소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은 천상의 신선으로, 오래도록 옥황상제의 향안전에 있다가 현포에 놀러 와서 옥액을 다 마시고, 취흥을 이기지 못하여 만년 묵은 나무에서 구슬 꽃을 꺾어 든 채 바람을 타고 인간 세계에 떨어진 기상입니다.

노조린과 왕발은 해상의 선인으로, 해와 달이 출몰하고 구름이 변화하며, 푸른 파도가 요동하고 고래가 물을 뿜으며, 섬이 아득하고 초목이 무성하며, 꽃처럼 일렁이는 물결과 마름잎, 물새들의 노래, 교룡의 눈물을 모두 흥금에 간직한 것이 그의 시의 조화입니다. 맹호연은 음향이 가장 높는데, 그는 사광에게 음률을 배우고 익힌 사람입니다. 이의산은 선술을 배워 일찍부터 시마를 부렸으니, 그가 일생 동안 지은 시는 귀신의 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잡다한 사람들이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⁵⁴⁾

진사가 대답했네.

“그렇습니다. 숙된 선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회와 군운 고기가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자미의 시는 짐짓 회와 구운 고기입니다.

대군이 물으셨네.

“두보는 온갖 문체를 구비하고 있으며 비홍이 매우 정교한데, 그대는 어찌하여 두초당을 가볍게 여기는가?”

진사가 사죄하며 대답했네.

“제가 감히 어떻게 감히 두보를 가벼이 여기겠습니까? 그의 장점을 논한다면, 한 무제가 미양궁에 남시어 사방의 오랑캐들이 미쳐 날뛰는 것을 분하게 여기시고 장수들에게 정벌케 하니, 곰처럼 힘이 센 백만 명의 군사가 수천 리에 쫓 뺏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위대한 점을 말한다면, 사마상여로 하여금 장문부를 짓게 하고 사마천으로 하여금 봉선서를 짓게 한 것과 같습니다. 신전에서 구한다면, 동방삭이 좌우에서 모시고 서왕모가 천도를 바칠 만합니다. 이 때문에 두보의 문장은 온갖 문체를 구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백과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을 비교할 수 없고 강과 바다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왕유와 맹호연에 비교한다면, 두보가 수레를 몰아 앞서 달리고, 왕유와 맹호연이 채찍을 잡고 길을 다룰 것입니다.”⁵⁵⁾

이렇게 그는 자신이 선호하는 시인으로 이백과 왕유, 맹호연 등을 들고, 두보는 문장으로 백체를 구비하였으나 마치 회와 적으로써 시속 선비의 입맛에 맞게 함과

54) 進士曰：“以小子所見言之，李白天上神仙，長在玉皇香案前，而來遊玄圃，餐盡玉液，不勝醉興，折得萬樹琪花，隨風雨散落人間之氣象也。至於盧王，海上仙人，日日出沒，雲華變化，滄波動搖，鯨魚噴薄，島嶼蒼茫，草樹蒼鬱，浪花菱葉，水鳥之歌，蛟龍之淚，悉藏於胸襟，此詩之造化也。孟浩然音響最高，此學師曠，習音律之人也。李義山學得仙術，早役詩魔，一生編什，無非鬼語也。自餘紛紛，何足盡陳。”

55) 進士曰：“然。以俗儒所尚言之，猶膾炙之悅人口。子美之詩，眞膾炙也。”大君曰：“百體俱備，比興極精，豈以草堂爲輕哉？”進士謝曰：“小子何敢輕之。論其長處，則如漢武帝，御未央之宮，憤四夷之猖夏，命將薄伐，百虎萬態之士，連亙數千里，言其短處，則如使相如賦長楊，馬遷草封禪。求神山，則如使東方朔侍左右，西王母獻天桃。是以杜甫之文章，可謂百體之俱備矣。至比於李白，則不啻天壤之不侔，江海之不同也。至比於王孟，則子美驅車先適，而王孟執鞭爭道矣。”

같아서 그들은 두보에 비하면 천양의차, 강하의 차가 있는 월등한 시인이라 평한다.⁵⁶⁾

김진사가 두보의 시를 저평가하는 이면에는 두보가 당왕조의 국난과 인민들의 처절한 삶을 형상화한 사회시를 추구했고, 이러한 면은 두보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조선에서 두보의 시를 유교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교육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두보의 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철저하게 유교숭상을 위하여 선양되었고, 사대부들은 이를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떠들어댔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진사는 두보의 시가 유교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사대부들의 기호와 맞아 떨어지는 두보의 시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자유로운 성정의 토로를 추구하는 이백과 왕유, 맹호연 등의 시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백과 맹호연, 이상은 등은 그의 이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대타자인 것이다. 이렇듯 김진사의 무의식에 각인된 대타자의 모습은 옛 선인들의 모습을 투영한 도학군자로 자유로운 사상의 인격체였던 것이다. 이백 등의 호방하고 시기에 얽매이지 않는 낭만적 기풍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는 인위적 윤리나 억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고 초탈한 세계를 지향하는 김진사의 세계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에 인용한 내용에서와 같이 그가 이백, 왕유, 맹호연을 평하는 관점은 모두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정의 지취를 토해냈던 시인들이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백에 대한 김진사의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김진사는 애당초 규범적 이념을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성의 구가를 꿈꾸는 인물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김진사가 두보보다 이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그가 이백처럼 현실적 지배 질서 및 이데올로기에 거리를 둔 일탈자적 지식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⁵⁷⁾ 즉 당대의 전형적인 성리학적 세계관 및 그것이 지배하는 당대의 현실사회에 드러나는 모순을 인식한 김진사는 안평대군이 추구하는 탈속과는 또 다른 도가적 편향을 보이면서 당대의 현실세계에 대해 일정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⁵⁸⁾

김진사가 이처럼 당대의 현실적 지배질서 및 이데올로기에 거리를 두고 낭만적 기풍과 도가 편향적 세계관을 가진 것은 이백과 맹호연, 이상은 등 시인의 삶을

56) 박일용, 앞의 책, p.175.

57) 김나연, 「고전 소설에서의 열린 평가 방법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33~34.

58) 박일용, 앞의 책, p.176.

무의식적으로 지향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욕망했기 때문이다.

(2) 유영

<운영전>은 액자소설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 액자 밖의 세계는 비록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치밀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전>의 이본 중에는 그 제목을 <유생전> 혹은 <유영전>이라 하여 액자 밖의 인물인 유영의 존재를 강조하기도 한다.

액자 밖의 인물로서 액자 속의 사건을 전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유영은 나이 스무 남짓의 청춘에 풍채가 빼어나고 학문이 유려하나 가세가 빈한하여 의식을 이을 길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그는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여 경치가 좋은 수성궁을 구경하여 스스로를 위로코자 하나 의상과 용색이 남루하여 남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서 감히 생심을 내지 못한다. 그러던 중 화려한 봄날에 흥을 이기지 못하여 구경을 나왔다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인적이 드문 후원으로 가서 홀로 외로움을 달래다가 술에 취하여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유영의 이러한 처지는 예사로이 보아 넘길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이다. 스무 남짓 되는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끼니를 잇기 어렵고 남의 비웃음을 살만큼의 남루한 옷을 입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적 처지, 젊은 유영을 더욱 초라하게 하는 화려한 풍광과 날씨 등의 대조 속에서 유영은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 비극적인 자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유영은 폐허가 된 수성궁에 들어 손수 준비했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든다. 그리고 깨어나 김진사와 운영의 영혼을 만나고 그들이 안평대군 시절의 선비와 궁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생이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하고 대답을 강요하자, 소년이 대답하여 말했다.

“성명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강요한다면 성명을 아뢰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소년은 오래도록 슬픔에 젖어 괴로워하다가 말을 이었다.

“제 성은 김가입니다. 10살 때 시문에 능통하여 학당에 이름이 났으며, 14살 때

진사 제 2과에 급제하여 당시 사람들이 모두 저를 김진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젊은 혈기와 호탕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이 여자와의 연고 때문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육신으로 마침내 불효의 자식이 되어, 천지간에 한 죄인으로써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굳이 제 이름을 알려고 하십니까? 이 여자의 이름은 운영이며, 저 두 여자의 이름은 녹주와 송옥입니다. 이들은 모두 옛날 안평대군의 궁녀였습니다.”

유생이 말했다.

“말을 꺼내었으되 다 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예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안평이 한창 활동하던 때의 일과 진사가 슬퍼하는 연유를 상세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⁵⁹⁾

유영은 그들이 안평대군 시절의 사람임을 알자마자 이렇듯 독촉하듯이 그 때의 일을 말해주길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영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읽을 수 있다. 김진사는 안평대군 시절의 사람으로 그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뿐 안평대군의 시절이 성시지사였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영은 김진사의 가슴 아픈 사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안평대군의 시절을 성시지사라 칭하며 그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즉, 유영은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기 이전부터 안평대군이 생존했던 시기를 성시지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영은 안평대군이 살았던 시절을 자신과 같은 문인이 귀히 여겨지던 시절로 생각하며 그 시절을 꿈꾸는 것이다. 즉, 유영의 남루한 처지와 현실에서의 소외는 그를 명유들이 모여 시문과 담론을 펼치는 안평대군의 시절을 꿈꾸게 하고 그 시절을 문인들의 성시지사라 생각하게 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안평대군은 만 권의 장서를 모아 놓고 문사들을 불러 모아 시문과 담론을 나누었고 명유들과 교류를 맺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리고 작품 속의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로 팔대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유업으로써 자임하며 밤이면 글을 읽고 낮이면 시를 읽거나 글을 쓰면서 자신을 한시도 방과치 않는 인물이다. 이처럼 안평대군은 높은 학문적 성취와 재능을 가졌고, 항상 자신을 갈고 닦는 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운영의 이야기를 통해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도 학문을 익힐 기회를 주며,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히

59) 生先言己名而強之，少年歎息而答曰：“不言姓名，其意有在，君欲強之，則告之何難，而所可道也，言之長也。”愀然不樂者久之，乃曰：“僕姓金，年十歲，能詩文，有名學堂，而年十四，登進士第二科，一時皆以金進士稱之。僕以年少俠氣，志意浩蕩，不能自抑。又以此女之故，將父母之遺體，竟作不孝之子，天地間一罪人之名，何用強知？此女之名雲英，彼兩女之名，一名緣珠，一名宋玉，皆故安平大君之宮人也。”生曰：“言出而不盡，則初不如不言之爲愈也。安平盛時之事，進士傷懷之由，可得聞其詳乎？”

지 않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진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 그리고 어린 김진사의 재능을 익히 알고 먼저 자신의 집에 청하며 그 재주를 높이 사는 겸양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유영에게 안평대군을 중세 왕권주의의 이상적인 지배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하도록 만들었다.

유영에게 있어 안평대군은 자신의 처지와는 너무도 다른 선망의 신분이며, 자신의 삶과 상반되는 삶을 산 대상으로 세상의 상처를 가득 받으며 살아온 자신과는 다른 이상적 대상인 것이다.⁶⁰⁾ 이렇듯 현실에서 소외되고 결핍을 맛보는 그는 안평대군의 시절을 성시지사라 기억하고, 그 성시지사를 이끌어낸 안평대군을 존경하고 숭배한다. 학문의 성취와 권력 그리고 군자적 면모를 욕망하는 유영에게 안평대군은 그 모든 것을 갖춘 인물로 ‘상상 속의 대상’으로 자리한 것이다.

2) 주체의 결핍으로 인한 도피의 욕망

(1) 김진사

김진사는 윤영이 사랑에 빠질 때 묘사한 것과 같이 천상선인의 모습에 안평대군에게 알려질 정도로 문장에 재능이 있는 선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사는 윤영과의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입신양명과 부귀공명 그리고 효와 충을 모두 어겼다. 이러한 비극은 모두 궁녀인 윤영과의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사랑의 선택으로 일어난 이와 같은 비극은 자칫 낭만적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김진사의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낭만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진사는 안평대군이 몇 번을 청하여 초대를 할 정도로 문명을 떨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평대군이 연 잔치에서 낮은 신분과 젊은 나이로 인하여 말석에 앉는다. 김진사가 말석에 앉는다는 것은 표면적 이유일 뿐 그가 제도권 내에서 아직 현달치 못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곧 그가 사회적 기반이 미약한 유생의 신분임을 의미한다.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처지는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비가 자신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그에 응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

60) 문효상, 앞의 논문, p.56.

하고 있다. 운영과의 도주를 계획할 때도 운영의 재물을 챙겨서 가져가야 했고, 운영이 죽고 난 후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도 힘든 처지였다.

나그네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아가고,
궁중에는 가을 빛 깊었네.
물이 차니 연꽃은 아름다움을 잃고,
서리 거둬 내리니 국화는 금빛을 드리웠네.
비단 자리에 앉은 꽃다운 여인은,
구슬로 만든 줄로 백설곡을 연주하네.
유하주 한 말에,
성급함을 금치 못하고 먼저 취하네.⁶¹⁾

연기는 아름다운 못에서 흩어지고 이슬 기운 서늘한데,
하늘은 강물처럼 푸르고 밤은 길기만 하네.
가벼운 바람은 뜻이 있는 듯 구슬발에 불고,
밝은 달은 다정한 듯 작은 연못에 드네.
뜰 가에 그늘 열리니 소나무는 그림자 돌이키고,
잔 속의 술이 일렁이니 국화 향기 머물렀네.
완공이 비록 젊으나 자못 술 마실 수 있으니,
술향아리 사이에서 취한 뒤의 광기를 꺾이지 말라.⁶²⁾

위의 시는 대군을 처음 상면한 김진사가 대군의 극찬과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지은 시이다. 두 시는 모두 궁궐의 가을 정치와 시주(詩酒)를 갖춘 자리의 정취를 읊고 마지막으로 술에 취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대군으로부터 황감한 찬사가 있었지만 그의 취함은 그것에 감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취함은 자신을 가누지도 못하는 취함이요, 광기 서려있는 취함이다. 주군 앞에서의 이러한 취함은 단순한 정취나 풍류라 보기 어렵다. 이것은 내심 어떤 울분이 취함을

61) 旅鴈向南去, 宮中秋色深.
水寒荷折玉, 霜重菊垂金.
綺席紅顏女, 瑤絃白雪音.
流霞一斗酒, 先醉意難禁.
62) 烟散金塘露氣涼, 碧天如水夜何長.
微風有意吹垂箔, 白月多情入小堂.
夜畔隱開松反影, 盃中波好菊留香.
院公雖小頗能飲, 莫怪瓮間醉後狂.

타고 나온 것이다.⁶³⁾ 안평대군은 김진사의 이 시를 보고 “진사는 오늘날의 재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능히 그 고하를 논할 수가 없구려.”라고 고평한다. 이러한 김진사의 재능은 뛰어난과 월등함을 갖추고 있으나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그 인정을 받기에는 시대를 앞서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김진사의 시에서 드러나는 그 내심의 분출은 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현실적 기반의 미약이나 자신과 사회의 사상적 불일치로부터 오는 자신의 한계성과 관계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대군은 즉시 사람과 말을 보내어 김진사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김진사가 도착해서 자리로 나아오는데, 얼굴이 비쩍 마르고 기운이 소진되어 예전의 기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에 대군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진사는 아직 초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둘 일이 없을 텐데 먼저 연못가의 초채함을 두었는가?”

이 말을 듣고 모두들 크게 웃으니, 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미하고 친한 유생으로 외람되이 나라의 은충을 입었습니다. 복이 지나고 재앙이 온 탓인지 질병이 몸에 얹히어 식음을 전폐한 채 움직이는 것도 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의 후덕하신 부름을 받은지라, 남의 부축을 받고 겨우 와서 뵙나이다.”⁶⁴⁾

“그대를 한 번 본 이후로 날아갈 듯 기빠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궁성의 서쪽을 바라볼 때마다 애가 끊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 벽 틈으로 전해준 편지로 잇을 수 없는 그대의 고운 글을 경건하게 받들긴 했으나, 다 펼치기도 전에 숨이 막히고 절반도 채 못 읽어 눈물이 글자를 적시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밥을 먹어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다. 병이 고황에 들어 온갖 약이 무효한지라, 다만 저승에서나마 뜻밖에 만나 서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 하늘은 굽어 불쌍하게 여기시고 귀신은 묵묵히 도와주소서, 만약 생전에 이 한을 한 번 풀어 주신다면, 마땅히 몸을 뺏고 뼈를 갈아서 천지의 모든 신령께 제사를 올리겠나이다. 종이를 대하니 목이 메입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의를 갖추지 못한 채 삼가 올립니다.”⁶⁵⁾

63) 김나연, 앞의 논문, p.33.

64) 大君卽送人馬請之。俄而，進士至而就坐，形容癯瘦，風概消沮，殊非昔日之氣像。大君慰之曰：“進士未憂楚之心，而先有澤畔之憔悴乎？”滿坐大笑。進士起而謝曰：“僕以寒賤儒生，猥蒙進士之寵眷，福過災生，疾病纏身，食飲專廢，起居須人，今承厚招，扶曳來謁矣。”

65) “自一番目成之後，心飛魂越，不能定情，每向城西，幾斷寸腸。曾因壁間之傳書，敬承不忘之玉音，開未盡而咽塞，讀未半而淚滴濕字。自是之後，寢不能寐，食不下咽，病入膏肓，百藥無效，九原可見，唯願溘然而從。蒼天俯憐，神鬼默佑，倘使生前，一洩此恨，則當紛身磨骨，以祭于天地百神之靈矣。臨楮

김진사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 혹은 상징질서와 부합될 수 없는 자신의 내재된 욕망을 시나 혹은 글을 쓰는 것으로 해소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자신의 결핍된 상태를 인지하고 운영과의 교감을 통해 운명적 상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진사는 운영과의 만남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운영을 그리는 마음에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 간다. 실현 불가능한 사람과의 사랑에 빠지게 된 그는 닿지 못할 안타까움에 더욱 초조함으로 수척해 진다. 라캉은 사랑은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즘적”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이 리비도의 대상이 되는, 자기애가 사랑의 본질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상대가 우리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 자아이므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상대를 자아 이상의 자리에 놓고 그것이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봐주기를 원한다. 즉 자아 이상의 위치에 있는 상대는 우리 자신을 새롭고 이상적인 존재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두 연인은 정신적 교감을 통하여 사랑의 자아 이상을 경험하게 된다. 비록 짧은 순간들이었지만, 그러한 교감을 통하여 둘은 서로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김진사는 운영을 만나기 위해 연소의 신분으로 무녀의 집을 자주 드나들어 음욕을 의심 받기도 하고, 종일 무녀 집에 앉아 울며 운영을 기다리기도 한다. 그리고 도망 계획 좌절 후 출입을 앓고 누워 눈물만 흘림으로 명이 실 같다거나, 운영의 자결 소식을 듣고 기절하니 집안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초혼 발상까지 하게 된다는 것은 운영과의 애정 외는 다른 아무 것에도 의미를 두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김진사의 애정은 사대부적 세계관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애정은 보편적 사대부의 삶의 가치 추구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상사동기>의 김생은 궁인 영영과 헤어진 후 학업에 열중하여 장원급제함으로써 중세 양반 관료 사회의 사대부적 삶을 실현하는데 비해 운영전의 김진사는 운영이 죽은 후 ‘세상일에 뜻이 없어 새 옷 갈아입고 고요한 곳에 누워 나흘을 먹지 않고 한번 깊이 탄식하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함’으로 죽음에로까지 감으로써 사대부적 삶을 포기한다.⁶⁶⁾ 이런 사실들로 보아 김진사는 양반 사회 내에서 학문적으로는 만인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 되어 다른 삶의 추구라는 대체적 가치로 애정을 발견하는 인물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진사의 탈속적인 경향과 애정 추구의 욕망은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대부적 삶을 포기하고 선택한 김진사의 애정은 현실의 불우로 인한 도피

哽咽，夫復何言，不備謹書。”

66) 김나연, 앞의 논문. p.34.

의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김진사는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자신의 욕망을 대체할 대상으로 사랑을 선택하게 된다. 운영과의 애정 성취에서도 인간 성정의 자연스런 발로를 사회로부터 억압받게 되면서 상징질서에 회의를 품게 된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내세를 기약하는 한계적 인물로 남고 만다.

(2) 유영

유영은 비록 준아하고 학문이 유여한 선비이지만 가계가 빈곤하여 의식을 이을 길이 없고, 어린 중도 없어 손수 술병을 들고 남루한 의상뿐인 몰락한 선비이다. 이러한 유영이 봄 정취를 느끼고자 궁문을 들어설 때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청파에 사는 선비인 유영은 이 동산의 경치가 빼어나다는 것을 익히 듣고 한 번 구경하고 싶었다. 그러나 옷이 남루하고 용모와 안색이 초라하여 놀러 온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터라, 정작 집을 나섰다가 주저앉은 지 오래였다.

만력 신축년 3월 16일에 유영은 탁주 한 병을 사들고 집을 나섰다. 어린 중은 물론 이미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마저 없어 몸소 술병을 허리춤에 차고 홀로 궁문 안으로 들어가자, 그를 본 사람들마다 서로 돌아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다. 유영은 부끄럽고 무료해서 이내 후원으로 들어갔다.⁶⁷⁾

유영은 사회·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몰락한 양반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소외된 지식인에게서 당대 현실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인식을 발견하게 된다. 일례로 김시습 같은 인물을 들 수 있다. 김시습은 자신의 이념과 학문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신세모순(身世矛盾)’을 개탄하면서 당대의 정치 현실을 부정했다. 그러나 유영에게는 자신의 학문에 대한 자긍심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세계에 위축

67) 靑坡士人柳泳, 飽聞此園之勝概, 思欲一遊焉, 而衣裳藍縷, 容色埋沒, 自知爲遊客之取笑, 況將進而越趨者久矣. 萬曆辛丑春三月既望, 沽得濁醪一壺, 而既乏童僕, 又無朋知, 躬自佩酒, 獨入宮門, 則觀者相顧, 莫不指笑. 生慙而無聊, 乃入後園.

되어 있는 모습일 뿐이다.⁶⁸⁾

그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로 인해 비극적 자아를 만들고 집 밖으로 외출을 하는 것마저 꺼리는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큰마음을 먹고 수성궁의 경치를 구경하러 나가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결국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후원으로 숨어 버린다. 여기서 유영이 몰락 양반으로서 세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채 실의에 빠져 현실 세계에서 도피코자 하는 소극적인 지식인임을 알 수 있다.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니, 갓 전란을 겪은 뒤인지라 장안의 궁궐과 성 안에 가득했던 화려한 집들이 텅 빈 채 남아 있지 않았다. 무너진 담과 깨어진 기와조각, 헤쳐된 우물과 무너진 돌계단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동쪽 문 몇 칸만이 홀로 우뚝 솟아 있었다.⁶⁹⁾

이렇듯 현실 세계에 위축되어 있던 유영은 갓 지난 임란으로 폐허가 된 수성궁을 보고 소동파의 ‘내가 조원가에 오르니 봄은 반쯤 지났는데, 땅 가득히 떨어진 꽃 쓸어버릴 사람조차 없네’라는 시구를 읊조린다. 이 소동파의 시는 당 헌종의 화청궁이 폐허로 변한 것에 대한 감회를 읊은 것으로 수성궁이 폐허로 변해 버린 것에 대한 감회, 곧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보편적 감회의 하나이다. 그러나 수성궁에 대한 유영의 감회는 현실 세계에 위축되어 있는 소극적 지식인의 현실 도피적 욕망⁷⁰⁾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과거로의 지향을 바라던 유영은 김진사와 운영의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가장 이상적인 시절로 생각했던 안평대군의 성시에도 인간에 대한 억압과 구속이 있었고, 부조리하고 모순된 사회였음을 깨닫게 된다. 욕망의 대상을 상실한 유영은 유랑의 길을 떠난다. 프로이트는 그의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죽음에 대한 충동이 있다는 가설을 발표하였다. 라캉도 죽음 충동과 리비도를 한데 묶어 ‘주이상스’라고 이름 붙였다. 즉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은 죽음뿐이라고 한 것이다. 현실에서 지속되는 쾌락, 욕망의 지속이 사라진 삶은 동력을 잃은 기계와 같다. 유영은 이러한 ‘잉여쾌락’을 상실하고, 동시에 타 대상과의 영원한 이별을 한다. 그리하여 삶의 동인을 상실하는 것이다.⁷¹⁾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68) 이상구, 앞의 책, p.481~482.

69) 登高四望，則新經兵燹之餘，長安宮闕，滿城華屋，蕩然無有，壤垣破瓦，廢井堆砌。草樹茂密，唯東廊數間，巋然獨存。

70) 이상구, 앞의 책, p.482.

유영의 상상적 혹은 환상적 세계마저 부서지게 함으로써 허무주의로 빠지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서 초탈하고자 세계를 등지고 도피의 세계로 들어간다.

3. 안평대군, 象徵的 主體의 彷徨

1) 왜곡된 정치적 욕망

구조주의자들은 고소설에서 실존 인물의 명명을 기호로 본다. 실존 인물의 명명, 그 기표가 기의로 작용할 때는 인물에 얹혀 있는 문맥(context)에 따라 그 해석의 여지는 달라진다.⁷²⁾ 실존인물이 소설 속에 등장하게 되면서 독자는 소설 속에 허구적으로 형상화된 인물과 그 이미지를 일정 부분 일치시키게 된다. 이러한 인물의 일치는 실존인물이 끌어오는 정보의 맥락과 거기서 비롯된 ‘사실적 효과’를 유발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설 속에 구성된 허구적인 인물임을 상기해야 한다. 소설 속 실존인물은 해석시 사실적 정보를 맥락적으로 끌어오지만 그 기호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차적 기의가 다시 이차적인 기표가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산출하는 해석의 과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⁷³⁾ <운영전> 속의 안평대군 또한 사실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장치로 실존인물인 안평대군과 일치하지는 않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역사 속의 안평대군과 작품 속의 안평대군이 많은 부분 일치하는 면을 보이고 있고,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일정부분 실제 역사의 안평대군을 연관시켜 의미를 찾고자 했다.

안평대군은 왕자로서 학문을 좋아하고 시문을 잘 하였으며, 서법(書法)이 기절(奇絶)하여 천하제일이었다. 또 그림 그리기와 금슬(琴瑟)타는 재주도 훌륭하였다. 성품은 부탄(浮誕)하여 옛것을 좋아하고, 경승(景勝)을 즐겨 북문 밖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지었으며 남호(南湖)에 임하여 담담정(淡淡亭)을 지어 만 권의 장서(藏書)를 갖추어 놓고 문사들을 불러 모아 십이경(十二景)과 사십영(四十詠)을 지어 혹은

71) 문효상, 앞의 논문, pp.49~50.

72) 최용호, 『텍스트 의미론 강의』, 인간사랑, 2004, p.25.

73) 임수현, 앞의 논문, p.5.

등불 밑에서 이야기하고 혹은 달밤에 배를 띄웠으며, 혹은 연구(聯句)를 짓고 혹은 바둑 장기를 두고 풍류가 끊이지 않았으며, 항상 술을 마시고 해학을 즐기며 놀았으니 당시 명유(名儒)들과 교류를 맺지 않은 이가 없었고, 무뢰잡업(無賴雜業)의 사람들도 많이 그를 좇았다.⁷⁴⁾

위 인용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안평대군이 경승처(景勝處)에서 무이정사(武夷精舍), 담담정(淡淡亭) 등을 지어 놓고, 여러 문사들과 시문, 담론, 풍류, 해학을 즐겼다는 대목이다. 이처럼 “비해당이 학문을 좋아하여 당시의 이름난 학자들 가운데 교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⁷⁵⁾는 기록은 문헌에 두루 보인다. 조선시대 대군(大君)이 대개 그랬던 것처럼, 안평대군도 차단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시문과 풍류로 소일하며 달랬던 것이다.

<운영전>에는 역사적 인물인 안평대군이 허구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작품 속의 안평대군 역시 실제 역사 속의 안평대군과 같이 시문에 능하고 서법이 뛰어났으며 모든 면에서 영특하여 세종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럼 <운영전>에 형상화 되어 있는 안평대군의 모습을 살펴보자.

장헌대왕의 아들 8대군 가운데 안평대군이 가장 영리하고 뛰어났습니다. 임금께서는 그를 매우 사랑하여 상금을 무수히 내려주신 까닭에 전민과 재물이 대군들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대군이 13살 때 사궁으로 나가 살게 되었는데, 그 궁 이름이 곧 수성궁입니다. 대군은 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자처하여 밤에는 독서를 하고 낮에는 시를 짓거나 예서를 쓰는 등 일찍이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당시의 문인과 뛰어난 선비들이 모두 수성궁에 모여들어 실력을 겨루었는데, 때로는 새벽닭이 세 번 울 때까지 학문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군은 필법에도 뛰어나 온 나라에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문종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 집현전의 여러 학사들과 함께 안평의 필법을 거론하면서 항상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 아우가 만약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비록 왕일소에게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찌 조송설보다 못하겠는가!”

문종께서는 이렇듯이 안평대군에 대한 칭찬을 마지 아니하셨습니다.⁷⁶⁾

74) 성현, 『용재총화』, 민족문화추진회, 1997, p.47.

75) 정출현, 위의 책, p. 123.

76) “莊憲大王子，八大君中，安平大君最爲英睿。上甚愛之，賞賜無數，故田民財貨，獨步諸宮。年十三，出居私宮，宮名卽壽聖宮也。以儒業自任，夜則讀書，晝則或賦詩，或書隸，未嘗一刻之放過，一時文人才士，咸萃其門，較其長短，或知鷄叫參橫講論不怠，而大君尤工於筆法，鳴於一國。文廟在邸時，每與集賢殿諸學士，論安平筆法曰：“吾弟若生於中國，雖不及於王逸少，豈後於趙松雪乎!”稱賞不已。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전>에 형상화되어 있는 안평대군 역시 필법에 뛰어나 그 이름을 떨치고 문인재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더욱이 소설 속의 안평대군은 세종의 8대군 중 가장 영특하였다고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안평대군 역시 실제 역사 속의 안평대군과 마찬가지로 차단된 정치·사회적 욕망을 시문과 학문에의 전념으로 굴절시키고 있다.

하루는 대군이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온갖 재주는 반드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공부를 한 뒤에야 이룰 수 있다. 도성문 밖에 산천이 고요하고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학업을 오로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군은 즉시 그 위에다 깨끗한 집 10여 칸을 짓고, 그 집에 현판을 붙여 비해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무릇 명분을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의 뛰어난 문장과 서예가들이 모두 그 단에 모이었는데, 문장은 성삼문이 으뜸이었으며, 필법은 최홍효가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군의 재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대군이 술에 취한 채 여러 궁녀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재주를 내릴 때 어찌 유독 남자에게만 많이 내리고, 여자에게는 적게 내렸겠느냐? 오늘날 문장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아니나, 대개 서로가 엇비슷하여 특별히 뛰어난 자가 없으니, 너희들도 힘쓰도록 해라.”

이어서 대군은 궁녀들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어여쁜 자 10명을 뽑아서 가르쳤습니다. 먼저 『소학언해』를 주어 외우게 한 뒤에 『중용』·『대학』·『논어』·『맹자』·『시경』·『서경』·『통사』를 모두 가르쳤습니다. 또 이백과 두보 등 당시를 몇 백 수 뽑아서 가르치니, 과연 5년도 채 안되어 10명 모두가 재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⁷⁷⁾

위의 글에서 안평대군에게 천하를 품은 욕망이 담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에서 천하의 온갖 재주가 의미하는 것은, ‘성삼문’과 ‘최홍효’ 등 당대 최고

77) 一日, 大君於妻等曰: “天下百家之才, 必就安靜處, 做工而後可成. 都城門外, 山川寂寥, 閭落稍遠, 於此做業, 可以專精.” 卽構精舍十數間于其上, 扁其堂曰: ‘匪懈堂’, 又築一壇于其側, 名曰: ‘盟詩壇’, 皆顧名思義之意也. 一時文章鉅筆, 咸集其壇, 文章則成三問爲首, 筆法則崔興孝爲首. 雖然, 皆不及於大君之才也.

一日, 大君乘醉, 呼諸侍女曰: “天之降才, 豈獨豐於男而嗇於女乎? 今世以文章自許者, 不爲不多, 而皆莫能相尚, 無出類拔萃者, 汝等亦勉之哉!” 於是, 宮女中, 擇其年少美容者十人教之. 先授諺解小學, 讀誦而後, 庸學論孟詩書通史, 盡教之, 又抄李杜唐音數百首教之, 五年之內, 果皆成才.

의 문신들과 같이 학문적 능력과 군자로서의 소양을 갖추어 명분과 의리를 체득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안평대군의 호방함은 학문하는 데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 데로 이어지지만, 그가 특히 궁녀를 뽑아 가르친 이유는 당시의 문장가들이 서로가 엇비슷하여 특별한 자가 없으니 궁녀를 통해서 특별한 문장가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안평대군은 뛰어난 문장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 하늘이 내린 재주가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전제로 나아가 어리고 미인인 궁녀를 뽑아 학문을 가르친다. 당시의 궁녀에게는 학문이라는 것이 특별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평대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안평대군의 천하를 품은 개인의 욕망의 연장선에서 결정된 것이다. 더욱이 사군의 궁녀라는 신분적 한계는 그것에 대한 절대적 복종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안평대군의 수성궁은 법적 제재가 따르는 수련과 훈련의 공간이다. 안평대군의 법은 자신의 왕족이라는 신분과 문예관에 의해서 규정되며, 궁녀들의 신체에 대한 일탈, 언어에 대한 일탈, 태도에 대한 일탈에 대해서 감시·처벌·교정을 하는 기능을 한다.⁷⁸⁾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은 문장가이자 궁녀들의 시의 고하를 평가하여 상과 벌을 내리는 훈육자인 동시에 감시자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안평대군의 훈육과 감시는 자신의 욕망을 타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안평대군은 자신에게 있어 문화적 타자, 젠더로서의 남성성/여성성, 왕족/궁녀, 주/종, 군주/신하의 대립항에 있는 타자인 궁녀들을 자신의 사제관계로 엮어 분신으로 만들기 위해 어려서부터 교육했다. 그리고 안평대군이 그녀들을 인정하는 것은 문장가의 분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평대군에게는 수성궁 밖의 문장가들에게 은근한 자랑거리였다. 궁녀에 대한 감시는 당시 궁녀의 단속 차원의 일이기도 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들에 대한 감시는 그에게 있어서 집착에 가까운 ‘분신’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했다. 안평대군의 운영에 대한 집착은 그의 존재 자체에서 실현될 수 없는 욕망을 그의 존재 밖에서 ‘나 아닌 존재’, ‘저기 바깥에’ 있는 존재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안평대군에게 있어서는 ‘궁녀’로 나타난다.⁷⁹⁾

안평대군은 궁녀들을 덕과 의로써 교화하려는 기상을 교육하고 속인과 접촉하지 않고 성정을 다스리라고 강요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안평대군 자신이 뛰어난 문장

78) 양운덕, 『미셸 푸코』, 살림, 2004, p.42.

79) 임수현, 앞의 논문, p.136.

가였기에 그것을 전승하려 했던 의도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설 속의 안평대군은 문장가들과 실력을 다투고 시문을 평하고 논하는 일로 자아 성취를 한다. 그리고 궁녀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권력을 표출한다. 안평대군의 권력은 수성궁 안에 제한되고, 안평대군의 천하를 품을 만한 욕망은 운영의 저항에 부딪혀 그 기상을 펴지 못하고 수성궁 안에서 학문적인 의욕으로 승화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수성궁의 질서는 정치적 진출을 상실한 안평대군이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표출한 왜곡된 정치적 욕망의 굴절된 모습이라 생각된다.

2) 이상세계 건설에의 욕망과 좌절

안평대군은 작품 속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소유한 대군으로서 상징적 질서의 대변인이자 상징적 질서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평대군 자신은 정치적 진출이 차단되어 있음으로 인해 조선 사대부들의 입신양명 추구라는 가장 커다란 이상으로부터 소외된다. 대군으로서 성리학적 지배이념을 실행하고 강화해 나아가야 할 그는 이 소외에 의해 결핍을 느끼고 다른 욕망을 꿈꾼다. 이 욕망은 수성궁이라는 자신의 사궁 내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욕이 제거된 무위의 청정한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지배권 속에 두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세계 건설의 일환으로 궁녀들을 교육하고 보살핀다.

이러한 안평대군의 의도는 궁인들의 시에 대한 그의 평을 통해 드러난다. 그는 아래에 인용한 부용의 시 중 “그윽한 생각이 초나라 임금을 생각하였다.”⁸⁰⁾는 구절에 표현된 주군을 생각하는 충절을 칭찬하며 그러한 정신이 들어 있는 이 시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

공중에 날아올라 비를 두르더니,
땅에 떨어져 다시 구름이 되었네.
저녁이 가까워 오자 산 빛은 어두운데,

80) 향초군(向楚君): 여기서는 운우지락을 뜻하기보다는, 초(楚)나라 회왕(懷王)을 그리워하며 <이소(離騷)>를 지어 충간했던 굴원의 고사에 빗대어 충정을 노래한 것으로 보임.
이상구 역, 『17세기 애정전기 소설』, 월인, 1999. p.105.

그윽한 생각 초나라 임금을 향하네.⁸¹⁾

그리고 비취와 소옥의 다음과 같은 시를 이소와 시경에 비할 만하고, 옥녀의 시는 생각이 떠나나면서도 마지막 구에 넉넉한 뜻이 은은하게 깃들여 있다고 고평한다.

구름이 꽃을 덮으니 벌은 세를 잃고,
대숲에 아롱지니 새는 깃들 곳을 찾지 못하네.
황혼 녘엔 가느다란 비가 되어 내리니.
소슬한 빗소리 창 밖에서 들려오네.⁸²⁾ (비취)

푸른 연기 비단처럼 가늘어,
바람 따라 함께 궁문으로 들어오네.
흐릿흐릿 깊었다 다시 열어지니,
황혼이 가까워 옴을 깨닫지 못하였네.⁸³⁾ (소옥)

해를 가리운 구름 고운 비단처럼 가벼운데,
산을 가로질러 푸른 빛 길게 드리웠네.
미풍이 불어오자 점점 흩어지더니,
이내 작은 연못만 적실 뿐이네.⁸⁴⁾ (옥녀)

이와는 달리 운영의 시에는 쓸쓸히 님을 그리워하는 뜻이 있다고 문책한다.

저 멀리 보이는 푸른 구름 고우니,
아름다운 이는 깃 짜기를 마치었구나.
바람을 맞으며 홀로 슬퍼하더니,

81) 飛空遙帶雨, 落地復爲雲.

近夕山光暗, 幽思尙楚君.

82) 覆花蜂失勢, 籠竹鳥迷巢.

黃昏成小雨, 窓外聽蕭蕭.

83) 綠烟細如織, 隨風伴入門.

依微深復淺, 不覺近黃昏.

84) 蔽日輕紈細, 橫山翠帶長.

微風吹漸散, 猶濕小池塘.

날아가 무산에 떨어졌도다.⁸⁵⁾

여기서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념을 완전히 버리고 대상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몰입하는 즉물적 경지를 시의 이상으로 보고, 궁녀들에게 그러한 시의 이상에 도달하도록 요구한다. 즉 위의 시에서 비취와 옥녀의 시는 완전한 서경적 묘사로서, 이들 작품에는 시인 주관적인 감정이 전혀 이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감정이입을 배제한 상태를 안평대군은 순연한 성정의 표출이라 본다. 그러면서도 초나라 임금을 생각한다는 중세적 윤리의식의 투영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중세적 윤리의식을 제외한 어떠한 인간적 감정도 혼탁한 욕정으로 보고, 궁녀들을 인간세계와 절연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안평대군은 주종관계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궁녀들이 모든 정욕을 초월한 순연한 성정을 가지도록 강요한다.

안평대군의 이러한 정욕이 제거된 순연한 성정의 강요는 궁녀들에게만 지워진 것이 아니다. 안평대군은 운영을 사랑하면서도 그가 창조한 소우주인 문장국(文章國)의 이상성(理想性)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자기절제를 실행한다. 이 같은 집념은 수성궁에 기거하는 궁녀들에 대한 가혹한 통제와 금욕에의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시와 풍류로 조직된 완성되고 청결한 인공 세계, 세속의 혼탁함이 배제된 순수한 문단계이다.⁸⁶⁾ 그러나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교육하는 행위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도 함께 불러온다. 궁녀들은 지식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의 처지에 각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궁녀들의 각성은 이제껏 소리 내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표출하게 한다. 이 욕망의 표출의 발단이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의 시작이며, 이 사랑은 안평대군이 이룩하고자 했던 이상세계에 혼돈을 몰고 온다.

김진사는 운영과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사랑에 빠지는 소년으로서 특에게 이용당할 정도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맹목적인 애정의 실천가다. 안평대군의 감시와 의심 속에서 그는 담을 타고 넘어 운영과 위험한 사랑을 나눈다. 궁녀들이 수성궁의 체제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김진사의 애정 행각이 발각되면서 시행된 그들에 대한 안평대군의 문초 과정에서 드러난다.

궁녀들은 여성의 자유롭지 못한 생활, 특히 궁녀라는 특수 신분의 젊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간의 감정과 본능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부당한 속박의 상황에 대하

85) 望遠青烟細, 佳人罷織紉.

臨風獨惆悵 飛去落巫山.

86)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p.420.

여 불만과 분노를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다. 궁녀들은 안평대군이 운영의 행위를 알게 되어 “이 오인을 죽여 다른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며 형장으로 다스리려 할 때, “한번 말이나 하고 죽게 해 달라”며 자신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욕구를 억압당하고 있는지, 동시에 그에 대한 불만조차도 표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봉쇄되어 있는지를 호소한다.

은섬이 말했습니다.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나온 것으로 귀하고 천한 것의 구별이 없이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 깊은 궁궐에 갇힌 이후 그림자를 벗어나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달을 대하면 닢이 사라지는 듯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매화 열매를 찌꼬리에게 던져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주렴으로 막을 쳐서 제비 두 마리가 같은 둥지에 깃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름이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 쌍쌍이 노니는 찌꼬리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궁궐의 담을 넘지 않는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하며 마음이 차마 하지 못해서 그러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궁중에서 피할 수 있는 일을 오로지 주군의 위엄이 두려워 이마음을 굳게 지키다가 말라죽는 길뿐입니다.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사지로 보내려 하시니, 저희들을 황천 아래서 죽더라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⁸⁷⁾

자란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어떻게 차마 속이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향간의 천한 여자로 아버지가 대순도 아니며 어머니는 이비도 아닙니다. 그러니 남녀의 정욕이 어찌 유독 저희들에게만 없겠습니까? 천자인 목왕도 매번 요대의 즐거움을 생각했고, 영웅인 항우도 휘장 속에서 눈물을 금하지 못했는데, 주군께서는 어찌 운영만이 유독 운우지정이 없다 하십니까? 김생은 곧 우리 세대에서 가장 단아한 선비입니다. 그를 내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주군의 일이었으며, 운영에게 벼루를 받들라 한 것은 주군의 명이었습니다. 운영은 오래도록 깊은 궁궐에 갇히어 가을 달과 봄꽃에 매번 성정을 잃었고, 오동잎에 떨어지는 밤비에 애가 끓는 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호남을 한 번 보고서 심성을 잃어버렸으며, 마침내 병이 골수에 사무쳐 비록 불사약이나 월인의 재주라 할지라도 효험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운영이 하루 저녁에 아침 이슬처럼 스러

87) 銀蟾招曰: “男女情欲, 稟於陰陽, 無貴無賤, 人皆有之. 一閉深宮, 形單隻影, 看花掩淚, 對月消魂, 則可知人間之樂, 而所不爲者, 豈力不能而心不忍哉? 唯畏主君之威, 固守此心, 以爲枯死. 宮中之計, 今無所犯之罪, 而欲置之於死地, 妾等黃泉之下, 死不瞑目矣.”

진다면, 주군께서 비록 측은한 마음을 두시더라도 돌이켜보건대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김생으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게 하여 두 사람에게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주군의 적선이 입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운영이 궤결한 것은 죄가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의 이 한마디 말은 위로는 주군을 속이지 않고 아래로는 동료들 저버리지 않았으니, 오늘의 제 죽음 또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오히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제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잇게 해주십시오.”⁸⁸⁾

위 글은 안평대군이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죄로 다스리려 하자, 궁녀 은섬과 자란이 대군에게 항의하는 초사의 한 대목이다. 이 초사에서 정옥이란 남녀와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감정이라는 의식이 엿보인다. 더구나 은섬의 초사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랑의 성취와 실현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궁녀들의 생각이다. 이러한 궁녀들의 애정 성취 욕망은 안평대군이 이룩하고자한 정옥이 제거된 무위의 이상세계 건설과 대립된 뜻이다. 이러한 궁녀들의 인간 본연의 애정성취 욕망이 드러나고, 운영이 자결함으로써 안평대군은 더 이상 소우주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운영을 도운 네 명의 궁녀를 석방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수립했던 규칙을 철회하게 된 셈이며 정옥을 완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결국 현실 정치로부터의 소외를 수성궁이라는 이상세계 건설로 극복하려했던 안평대군의 노력은 그 곳에 투입한 혼돈, 즉 사랑의 열정에 의해 와해되었다. 즉, 운영과 김진사의 열정이 초래한 파국은 안평대군이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세계의 붕괴를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안평대군의 욕망은 좌절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전>에 등장하는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을 중시하고 그에 능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파격적인 남녀평등의 사고를 보이는 듯하다. 더욱이 안평대군이 이상세계를 건설하려하고, 자기만의 환상적 세계에 빠지는 등의 면모는 안평대군이 상상적 주체로 여겨질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안평대군이 궁녀를 여인으로 보기에 앞서 ‘여성이 아

88) 鵞鸞招曰：“今日之事，罪在不測，中心所懷，何忍諱之。妾等皆閭巷賤女，父非大舜，母非二妣，則男女情欲，何獨無乎？穆王天子，而每思瑤臺之樂，項羽英雄，而不禁帳中之淚，主君何使雲英獨無雲雨之情乎？金生乃當世之端士也。引入內堂，主君之事也。命雲英奉硯，主君之命也。雲英久鎖深宮，秋月春花，每傷性情，梧桐夜雨，幾斷寸腸。一見豪男，喪心失性，病入骨髓，雖以長生之樂，難以見效。一夕如朝露之溘然，則主君雖有惻隱之心，顧何益哉？妾之愚意，一使金生得見雲英，以解兩人之怨結，則主君之積善，莫大乎此，前日雲英之毀節，罪在妾身，不在雲英。妾之一言，上不欺主君，下不負同儕，今日之死，死亦榮矣。伏願主君，以妾之身續雲英之命矣。”

닌 존재'로 파악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줄 도구로 보았다고 생각한다. 즉, 안평대군이 궁녀에게 학문을 가르친 것은 남녀평등이 아닌 수성궁 내부에 또 다른 상징질서의 수립에 불과한 행위로 본다.

이상세계 건설은 더욱 강화된 상징질서를 세우려는 욕망으로 본인이 권력의 정점에 서서 자신의 성리학적 이념의 틀에 맞춰 타인의 감정과 욕망을 억압하는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안평대군은 상상적 주체가 아닌 상징적 주체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안평대군이 운영의 애정 행위가 발각되어 문초를 할 때, 궁녀들의 진심어린 호소를 듣고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모순을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며 운영을 살려 주었다는 점에서 방황하는 상징적 주체로 본다.

안평대군의 이러한 독특한 캐릭터는 겉으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분신이면서도 실상은 이를 회의하거나 최소한 이를 회의하는 존재들을 방기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게 한다.⁸⁹⁾ 상징질서 자체인 안평대군이 사회의 모순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그가 상징질서의 변혁을 바라거나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그래서 안평대군을 상징질서 자체를 고수하는 상징적 주체로 분류할 수 없고 상징적 주체이지만 어느 정도 모순점을 인식하고 있는 방황하는 존재로 보고자 한다.

4. 특, 前象徵的 主體의 復讐

1) 트릭에 의한 보상 추구의 욕망

‘특’이라는 인물은 우리의 고전 소설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운영전>의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독특한 성격을 가지면서 인물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도 안평대군과 특은 그 관심과 흥미를 한 몸에 받으며 여러 논자에 의해 분석되어 왔다.

특의 형상은 조선 중기 이후의 노비계층의 성장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들 가운데 외거하여 상전이나 소속관사의 경제 기반과 관계없이 생활해가면서 신공만을 납부하는 노비들이 다수를 차지하였

89) 정환국, 앞의 책, p.275.

는데, 특은 이러한 부류에 해당하는 노비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소유주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소유주의 예속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⁹⁰⁾

그러나 조선시대의 일반 민중들은 현실에서 억압과 질곡의 상태에 있었지만 오랜 숙명론적 구습과 패배주의적 태도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결핍을 느끼지 못했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볼 수 있어야 진정한 결핍을 체험하고,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다.⁹¹⁾ 그러나 조선시대의 일반 민중들 대부분이 진정한 결핍을 체험하지 못했고, 진정한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특이라는 인물이 외거 노비로서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신분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진정한 결핍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의 욕망은 엄밀한 의미에서 욕구라 할 수 있다. 그는 단지 자기만을 바라보며 ‘돈’을 요구할 따름이다. 돈에 대한 그의 탐욕은 거의 무정부적이다. 그의 욕망은 헤겔식으로 표현하면 동물적 욕망이며, 악무한(惡無限)의 욕망이다.

특은 넘어설 수 없는 신분질서에 대한 피해의식, 보복 심리가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무의식들이 트릭의 기저로 작동하여 공격성과 범죄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특은 재주가 많기로 소문이 난 자로, 등장 초기에는 김진사와 운영의 애정 실현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다리와 털가죽으로 만든 버선을 만들어 주는 등의 일을 묵묵히 수행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어느 날, 진사는 갑자기 좋은 일이 끝나면 화가 이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크게 두려워하면서 종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비 특이 밖에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제 공이 매우 큰데, 아직껏 상을 주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까?”

진사가 말했습니다.

“가슴에 새겨 잊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상을 후하게 주겠노라.”⁹²⁾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열등감을 보상하여 우월감을 느끼게 되려 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인간 행동의 추진력이라고

90) 이상구, 앞의 책, p.150.

91) 우찬제, 앞의 책, p.279.

92) 一日, 進士忽慮好事之終成禍機, 中心大惧, 終日不樂. 特奴自外而進曰: “吾功甚大, 迄不論賞可乎?” 進士曰: “銘懷不忘, 早晚當重賞矣.”

하여 중요시했고 그것을 '권력에의 의지'라고 하였다.⁹³⁾ 보상작용이 인간의 진보와 향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사회적 진출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 그의 욕망은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으로 굴절되어 자신의 한계를 물질적으로 보상 받고자 한다.

김진사는 자신의 노비이기에 주인의 일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특은 자신의 노고에 대해 김진사가 해주어야 할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진사와 노비 특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이다. 그러나, 진사가 일방적으로 노비 특에게 도움을 받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권력을 행사할 자질을 잃고 있음을, 현실적 적응력으로 자신의 공로를 보상으로 요구할 줄 아는 인물임을 암시해 준다.⁹⁴⁾ 하지만 김진사는 운영과의 애정에 대한 욕망만을 성취하는 데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어 특의 욕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보상의 시기를 늦춘다.

특은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빠른 현실적 대응을 보이며 사건을 해결해왔다. 그런데 자신의 요구가 외면당하자 그는 재빨리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 그것이 바로 피해의식에 기인한 트릭이다. 그는 자신의 욕망의 대상인 돈을 보고 주저함 없이 행동하기 시작한다.

특은 집으로 돌아가 혼잣말로 일렀습니다.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그 재물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로다.”

특은 벽을 향해 남 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특이 자기 옷을 스스로 찢고 자기 코를 스스로 때려, 흐르는 피를 온 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달려 들어와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특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기절한 척했습니다.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친히 약물을 입에 흘려 넣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특을 살려내고, 술과 고기를 마련해서 먹이었습니다. 그러자 특이 10여 일 만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혈혈단신 혼자 몸으로 산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수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형세가 장차 박살날 것 같아 죽을힘을 다하여 달아나 겨우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와 같은 위험에 처

93) 로버트 윌리엄 런던, 『애들러 상담이론』, 노안영 역, 학지사, 2001, pp.35~36.

94) 권도경, 『조선 후기 전기소설사의 전변과 새로운 시각』, 보고사, 2004, p.160.

했겠습니까? 타고난 운명이 이처럼 험악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는고!”

말을 마친 특은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돌려보냈습니다.⁹⁵⁾

특은 처음에는 ‘재주가 많은’ 협조자이었다가 점차 물욕에 사로잡힌 적대자로 바뀐다. 특은 자신의 공로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도덕성이나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오로지 재물만을 위해 쾌악한 꾀를 낸다. 그는 김진사에게 운영을 보쌈하여 도망칠 것을 권하고, 운영과 김진사는 도주를 위해 자신의 재물을 수성궁 밖으로 빼내어 특에게 맡긴다. 그러나 운영이 도주를 단념하자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물을 빼돌린다.

특은 운영과 김진사가 도주를 단념한 것은 하늘이 재물을 자신에게 주기 위함이라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특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주인 김진사를 위로하거나 돕기는커녕 그 절망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그를 속인다. 후에 김진사가 특의 간 특한 음모를 알고 분개하지만, 그는 특을 처벌함으로써 운영과 자신의 사랑이 부모에게 탄로 날 것이 두렵고, 제 힘으로 특을 죽일 수 없음에 또 한 번 좌절하며 침묵하고 만다.⁹⁶⁾ 그러나 특은 거짓을 고하여 김진사를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김진사를 모함하기에 이른다.

특은 자기 죄를 알고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맹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궁궐 안에서 서쪽 담을 넘어 나왔소. 그가 도적인 것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는데, 그 사람은 가졌던 물건을 버리고 달아났소. 나는 그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관하고 있으면서 물건 주인이 와서 찾아가기를 기다렸소. 그런데 우리 주인은 본래 염치가 없어서 내가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몸소 내 집에 와서 그 물건들을 찾았소. 내가 다른 보물은 없고 단지 비녀와 거울 두 가지만 있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몸소 수색을 해서 과연 그 두 물건을 찾아내었소. 그래서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달아나면 길하겠소?”

맹인이 말했습니다.

“길하다.”

95) 特還家自思曰: “宮女不出來, 其財寶天與我也.” 向壁竊笑, 而人莫知之矣.

一日, 特自裂其衣, 自打其鼻, 以其流血, 遍身模糊, 被髮跣足奔入, 伏庭而泣曰: “五爲強賊所擊.” 仍不復言, 若氣絕者然. 進士慮特死, 則不知埋寶之處, 親灌藥物, 多般救活, 供饋酒肉, 十餘日乃起曰: “孤單一身, 獨守山中, 衆賊突入, 勢將剝殺, 故捨命而走, 僅保縲命. 若非此寶, 我安有如此之危乎? 賦命之險如此, 何不速死!” 卽以足頓地, 以拳叩胸而哭. 進士懼父母知之, 以溫言慰之而送之.

96) 박경민, 앞의 논문, p.76.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특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떠한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게 구느냐?”

특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나이는 어리나 문장에 능해서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탐욕스러우니, 훗날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서 있을 때 그의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⁹⁷⁾

위의 내용은 특이 운영의 재물을 차지하려다 발각되자 김진사를 모해하기 위해 궁 밖에 사는 맹인에게 거짓 소문을 내게 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특은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 김진사를 비방하는 트릭을 사용한다.

김진사는 특을 노비라는 귀속 신분인 보수적 틀 안에서 바라볼 뿐, 그의 내면에서 들끓고 있는 욕망을 직시하지 못한다. 김진사는 특의 재주를 자신의 욕망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하나, 특은 김진사의 기대와 믿음을 조롱이라도 하듯 김진사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역이용한다. 현실의 이념으로부터 도피하여 자기 욕망에 집중한 김진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특의 욕망에 대한 인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은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 그러한 김진사를 애정 파탄에 이르게 한다. 믿었던 노복의 재주가 자신과 운영을 사지에 빠뜨릴 음험한 계략이 될 것임을 예감하지 못함으로써 김진사는 비극적 애정의 종말로 다가가게 된다.⁹⁸⁾ 이처럼 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연기하고 속인다.

특이라는 인물은 조선시대의 노비계층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특은 상징질서인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소외되어 있다. 즉,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에서 남성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입신양명의 추구하고 권력이라는 가치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질서의 금압은 패배의식에 길들여진 민중들에게 진정한 결핍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고, 특 또한 진정한 결핍에 의한 욕망의 추동이 아닌 강력한 욕구로서 ‘돈’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한 돈이 주어지길 원하고 그러한 보상이

97) 特自知其罪，問於宮牆外盲人曰：“我向者晨過此宮牆之外，有人自宮中踰西垣而出，我知其爲賊，高聲進逐，其人棄所持物而走。我持歸藏之，以待本主之來推。吾主索之廉隅，聞吾得物，躬來索出，吾答以無他寶，只得鈇鏡二物云，則主人躬入搜之，果得二物。亦其無鑒，方欲殺之，故吾欲走去，走之吉乎？”盲曰：“吉矣。”驢隣在旁，多聞其語，謂特曰：“汝主何許人？虐奴如是耶？”特曰：“吾主年少能文，早晚應爲及第者，而爲貪婪如此，他日立朝，用心可知。”

98) 박경민, 앞의 논문, p.72.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짓과 트릭의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피해 의식이 트릭의 기저로 작동하여 ‘돈’이라는 보상을 강력히 욕망하는 것이다.

2) 파괴적 욕망

특이 지니고 있는 신분질서에 대한 피해 의식은 무의식 속에서 보복 심리로 작용하여 공격성과 범죄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김진사와의 갈등 사이에서 드러나는 특의 속임수 또한 성리학적 지배질서에서 소외되어 있는 보복 심리라 할 수 있다. 특의 보상심리는 물욕과 성욕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 같다. 하지만 특의 욕망은 물욕과 성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지배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통해 파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어젯밤 꿈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생김새가 영악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목둘선우라고 일컬으면서, ‘이미 오래 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 아래서 기다린 지 오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래도 꿈의 징조가 상서롭지 않습니다. 낭군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⁹⁹⁾

위의 내용은 운영이 김진사와 수성궁 밖으로 탈주를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꾸민 꿈의 내용이다. 이 꿈에서 목둘선우가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특인데, 이것은 특의 성리학적 지배질서 파괴욕망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목둘선우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계모와 이복형제 및 측근들을 모두 죽이고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왕의 자리에 올랐다.¹⁰⁰⁾ 목둘선우는 성리학적 이념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불효를 저질렀으며,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충을 배반하였다. 성리학적 지배질서의 가장 강력한 힘인 효와 충에 반하는, 그리고 현정권의 파괴를 의미하는 운영의 꿈은 특이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교묘히 부합하고 있다. 이러한 특의 파괴적 욕망은 김진사와 운영의 만남을 돕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9) “昨夕夢見一人，狀貌獐惡，自稱冒頓單于曰：“既有宿約，故久待長城之下。”覺而驚起，甚怪夢兆之不祥，郎君其亦思之乎?”

100) 사마천, 『사기열전(하)』, 남만성 역, 을유문화사, 1993, pp.560~564.

특은 김진사가 운영을 만나는 것이 근심이라고 할 때, 함께 도망가라고 부추긴다. 이때 김진사는 운영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죄를 짓는 것이라 한다. 이는 김진사가 뿌리깊이 성리학적 지배이념을 체화시킨데 비해, 특은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무시하고 그것을 파괴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제 친구들 가운데 힘이 센 이가 17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매일같이 강탈을 일삼고 있으나 나라 사람들도 능히 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는 매우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오로지 제 명령대로 따를 것입니다. 이들에게 운반하게 한다면 태산 또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진사가 궁궐로 들어와 저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럴 듯하게 생각하고 밤마다 제 물건을 수습하여 7일째 되던 날 밤에 모두 궁궐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특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보물을 본택에 쌓아 두면 큰 상전께서 반드시 의심할 것이고, 제 집에 쌓아 두면 남들이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산 속에 구덩이를 파서 묻고 단단히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와 너는 도적의 누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너는 삼가서 잘 지키도록 해라.”

특이 말했습니다.

“제 계획이 이처럼 심오하고 제 벗들이 이처럼 많으니, 천하에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긴 칼을 들고서 밤낮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면 제 눈은 도려낼 수는 있어도 이 보물은 빼앗을 수 없으며, 제 다리를 자를 수는 있어도 이 보물은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릇 특은 이 귀중한 보물을 얻은 이후에 저와 진사를 산골짜기로 유인하여 진사를 죽이고, 저와 재물을 자기가 차지할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사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인지라, 그것을 몰랐습니다.¹⁰¹⁾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특은 김진사를 위하는 척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재물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특의 본심은 세상물정 모르는 김

101) “吾友力士十七人，以日強韌爲事，人莫能當，而與我甚結，唯命是從。使此輩運之，則泰山亦可移矣。”進士入語妾，妾然之，夜夜收拾，七日之夜，盡輸于外。特曰：“如此重寶，積置于本宅，則大上典必疑之，積置于奴家，則人必疑之。無已則掘坑山中，深瘞而堅守之可矣。”進士曰：“若或見失，則吾與汝難免盜賊之名矣，汝可慎守。”特曰：“吾計如此之深，吾友如此之多，天下無難事，有何畏乎？況持長劍，晝夜不離，則吾目可抉，此寶不可奪。吾足可斷，則此寶不取，願勿疑焉。”蓋特意，得此重寶而後，妾與進士，引入山谷，屠殺進士，而妾與財寶，自占之計，而進士迂儒，不可知也。

진사를 속여 재물을 빼돌리고 운영까지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특은 자신의 물질적·성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파괴하려 한다. 또, 특의 친구들을 보면 강탈을 일삼지만 나라 사람들도 이를 막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긴 칼을 차고 산에 모여 강탈을 일삼고 사람을 해한다. 이는 산적과 다를 바가 없으며 특은 이들의 대장 혹은 동료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진정한 결핍을 느끼고 새로운 세상을 욕망하지는 않지만 무의식에서 세상에 소외된 자신의 욕망 혹은 욕구를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즉 특은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불교적 이념에도 얽매이지 않고 차라리 이를 파괴하고자한다. 이러한 점은 운영이 죽고 난 후 김진사가 운영을 위해 불공을 드릴 것을 특에게 명한 후 그의 행동에서 잘 나타난다.

특이 말했습니다.

“삼가 교시를 받들겠습니다.”

특은 즉시 절로 올라가 삼일 동안 불기를 두드리며 누워 있다가 스님을 불러 말했습니다.

“40석이나 되는 쌀을 어떻게 모두 불공을 드리는데 쓸 수 있겠느냐? 이제 술과 고기를 많이 마련해 널리 속객들을 불러들여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때마침 어떤 시골 아낙네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특이 강제로 겁탈하고 함께 승당에 들어가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십 일이 지났는데도 재를 베풀 뜻을 보이지 않자 절의 스님들이 모두 분개하였습니다. 건초일되어서 여러 스님들이 특에게 말했습니다.

“불공을 드리는 일은 시주가 중요합니다. 시주가 이처럼 불결하면 불공을 제대로 드리기 어려우니, 맑은 냇물에서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한 후에 예를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이 어쩔 수 없이 나아가 물로 대충 몸을 씻고 들어와 불전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진사는 오늘 빨리 죽고, 운영은 내일 다시 살아나서 특의 배필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이 3일간 밤낮으로 발원한 말은 오로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고서도 특은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운영 각시가 반드시 살아날 방도를 얻을 것입니다. 재를 베풀던 날 밤에 제 꿈

에 나타나, ‘지선으로 불공을 드려주시니 감사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더니, 절하며 울었습니다. 절 스님들의 꿈에도 모두 그러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02)

특은 김진사의 명을 받고 절에 들어와 운영을 위한 불공을 드리는 것이 아닌 고기와 술로 잔치를 베풀고 여성을 겁탈한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 사회에서도 지탄받아 마땅할 행동들인데, 하물며 신성한 법당 안에서 주색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고기, 술, 여자는 절 내에서 모두 금하는 것인데도 특은 거침없이 이러한 행동들을 일삼으며 스님들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 불교의 교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운영전의 특은 노비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진정한 결핍에 의한 욕망이 아닌 엄밀한 의미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특의 이러한 욕구는 물욕과 성욕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은 자신의 이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갖은 방법과 트릭을 동원한다. 이러한 특의 욕구 충족 방법은 강탈과 겁탈과 같은 범죄 행위로 나타나며 이는 자신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피해의식에 의한 보복심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보복 심리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파괴되길 욕망하였고, 불교의 교리를 파괴하였다.

또 주인인 김진사의 명을 거역하고, 강탈과 겁탈을 일삼으며 당대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또 더 나아가 물욕과 성욕에 자신을 내 맡김으로써 자신을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하면서 자신을 파괴하였다. 즉, 특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로 성리학적 지배질서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신의 비극을 파괴적 행동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표출함으로써 사회에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특의 보복 심리는 상징질서인 성리학적 사회질서에 편입하지 못한데 대한 소외감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상징질서에 편입하지 못하는 특을 ‘전상징적 주체’로 보고 사회적 보복을 욕망하는 인물로 보고자 한다.

102) 特曰: “謹受教矣”即上寺, 三日叩臀而臥, 招僧謂之曰: “四十石之米何用?盡入於供佛乎?今可多備酒肉, 廣招俗客而饋之宜矣.”

適有村女過之, 特強劫之, 留宿於僧堂, 已過數十日, 無意設齋. 寺僧皆憤之, 及其建醮日, 諸僧曰: “供佛之事, 施主爲重, 而施主不潔如此, 事極未安, 可沐浴於清川, 潔身而行禮可矣.”特不得已出, 暫以水沃濯, 而入跪於佛前祝曰: “進士今日速死, 雲英明日復生, 爲特之配.”三晝夜發願之設, 唯此而已. 特歸語我曰: “雲英閼氏, 必得生道矣. 設齋之夜, 現於奴夢曰, 至誠供佛, 不勝感謝. 拜且泣之, 寺僧之夢, 亦皆然矣”我信之其說矣.

IV. 결론

본고에서는 먼저 욕망을 결핍에 의해 끊임없이 충족을 지향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운영전>에 등장하는 주체들이 서사 내부의 상징적 질서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정도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욕망현시 양상을 텍스트 안과 밖의 사회 현실과 관련지어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 운영을 욕망실현에 있어 ‘상상적 주체의 미흡’인 주체 유형으로 보았다. 운영은 학문에 눈을 뜨면서 자아를 각성하고 사랑의 성취를 통해 여성성의 회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질서에 저항하여 상상적 주체로의 변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운영은 당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죽음을 앞두고는 성리학적인 윤리를 실천하려 하는 한계적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끝내는 죽음이라는 미약한 저항을 선택한다.

운영의 죽음에 이르는 저항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미약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선사회에서 절대권에 저항하여 여성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하나 뿐인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을 것이다.

운영이 끝까지 성리학적 윤리의식을 뛰어 넘지 못하고 그 저항이 죽음이라는 미약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점에서 ‘상상적 주체’라 하기에는 한계성을 갖지만 궁궐이라는 상징질서 안에서 대군을 상대로 저항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에 무게를 두어 운영을 ‘상상적 주체의 미흡’으로 규정하였다.

김진사와 유영은 ‘탈상징향상상적 주체의 상실’이라 규정하였다. 김진사와 유영을 통하여 17세기 이후의 신분변동에 따라 몰락해 가는 사대부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사회와 화합하지 못하고 상상 속에서 이상적인 타자를 욕망하고 있다. 김진사는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울타리가 아닌 자유롭게 자신의 성정을 표출할 수 있는 삶을 욕망함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선인들을 이상적인 타자로 욕망한다. 유영은 비극적인 자신의 처지와 대조를 이루며 학문적 성취와 인품을 두루 갖춘 안평대군을 이상적 타자로 욕망한다. 이러한 상상속의 타자에 대한 욕망이 현실에서는 결핍을 보이게 되자 김진사는 그 욕망의 대상을 운영과의 사랑의 성취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김진사의 애정 성취의 욕망은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로 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속적인 경향이 굴절되어 나타난 도피적 성격으로 보았다. 그리고 유영은 자신의 이상적인 타자라 믿어 의심치 않

있던 안평대군 또한 상징질서의 폭력적인 면모를 보였음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삶의 동인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상상적 혹은 환상적 세계마저 부서지게 되면서 이러한 세계에서 초탈하고자 세계를 등지고 도피하게 되는 것이다. 김진사와 유영은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이상세계를 꿈꾸기도 하지만 그 이상세계마저도 완전하지 못함을 깨닫고 도피하고 마는 ‘탈상징향상상적 주체’로 불안한 주체를 형성하게 된다.

상징질서 자체라 할 수 있는 안평대군은 ‘상징적 주체의 방황’이라 규정하였다. 안평대군은 역사적 사실에서 보여지 듯 소설 속의 안평대군과 많은 부분 일치점을 보이고 있어 그 해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정부분 실존인물을 연관시켰고 안평대군을 상징질서를 대변하는 인물 자체이면서도 정치적인 소외로 인한 결핍으로 인해 이상세계를 욕망하는 인물로 보았다. 그의 이러한 정치적 소외는 수성공이라는 이상세계를 욕망하게 했고 궁녀들을 자신의 분신으로 교육하게 했다. 안평대군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꿈꾸었던 수성공의 질서는 그의 왜곡된 정치적 욕망의 굴절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이상세계인 수성공은 윤영과 김진사의 사랑으로 결국은 좌절되고 만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징질서로 대변되는 안평대군이 성리학적 지배이념의 모순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가 상징질서의 변혁을 바라거나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않지만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그를 ‘상징적 주체의 방황’이라 하였다.

특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로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추구하는 입신양명과 부귀공명 등의 덕목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그는 상징질서에 편입할 수 없는 자신의 비극을 파괴적 행동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표출함으로써 사회에 보복하고 있다. 필자는 특의 보복 심리는 상징질서인 성리학적 사회질서에 편입하지 못한 데 대한 소외감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상징질서에 편입하지 못하는 특을 ‘전상징적 주체’로 보고 사회적 보복을 욕망하는 인물로 규정하였다.

이상 본 논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 등장인물의 욕망 체계 특성>

	윤영	김진사, 유영	안평대군	특
성리학적	결핍을 느끼고	결합되어	결합되어 있는	소외되어

지배이념의 욕망 체계와의 결합 정도	분리되어 있는 인물	있다가 결핍을 느끼는 인물	인물	있는 인물
성리학적 욕망 체계에 대한 대응 방식	회의를 품고 저항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수용	수용 혹은 강화	보복
사회상징적 기능	피지배층/여성	몰락 사인층/남성	지배층/남성	피지배층/남성
주체의 성격	미흡한 想像的 主體	脫象徵向想像的 主體	방황하는 象徵的 主體	前象徵的 主體
작가의 욕망 체계와의 결합 정도	中	強	弱	無
주체의 욕망 대상	성정의 실현	애정실현/입신양명	정치·사회적 진출	돈, 여성

이상과 같이 <운영전>에 등장인물들의 욕망 체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글은 글 쓴이의 욕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운영전>에 나타난 인물들에는 작가의 욕망이 담지 되어 있다고 본다. 작가의 욕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인물이라 생각 되는 유영이라는 인물과 다른 인물들을 통해 <운영전>에 내포되어 있는 작가의 욕망과 의식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의 결핍이라는 서사적 상황은 인물들로 하여금 상징계의 억압에서 탈출을 욕망하게 한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제대로 발을 디디지 못한 주체는 항상 일탈이라는 욕망을 꿈꾸게 된다. 따라서 공간의 진입이나 미끌어짐이라는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소와 완화가 아니라, 일종의 외면이나 도피처로서 작용하는 필연적 심리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체가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자아의 저변에 잠긴 욕망으로서 당대인들이 은밀하게 욕망하고 동경하는 욕망의 일면을 보여준다.¹⁰³⁾ <운영전>의 작가 또한 자신의 이러한 욕망을 <운영전>에 투영하고 있다.

<운영전>에 드러난 서술 욕망의 행로는 작가 스스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작된다. <운영전>의 중심인물인 윤영과 김진사는 현실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세계와 자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유영을 통해 비춰지는 비극은 다름 아닌 작가 자신이며, 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103) 이해경, 「윤대녕 소설에 나타난 주체의 욕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50.

자신의 존재 기반이 상실될지 모른다는 내면의식의 표출이다. 작중인물들을 통해 보여지는 부조리한 세계는 다름 아닌 작가가 인식하는 세계인 것이다. 작가는 <운영전>의 다양한 계층의 욕망을 통하여 자신이 현실에서 느끼는 성리학적 지배이데올로기의 모순을 표출하고 변화를 바라는 욕망을 <운영전>에 담아내었다.

작가는 소설 속에 결핍된 상황을 반영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주체의 모습을 통해 작가 자신의 욕망을 서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작가의 서술 행위는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는 자신의 욕망실현의 장소로 자신의 결핍된 욕망의 치유 과정이며,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벗어난 결과물인 것이다.

소설이란 허구적 창조의 세계임을 우선 인식해야 하지만, 이러한 소설의 세계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세상을 알아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는 <운영전>에 나타난 주체들의 욕망 양상과 작가의 욕망 유추를 통해 <운영전>이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의 결핍을 문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운영전>에서 주체들이 현실에 결핍을 느끼고 욕망의 충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욕망을 실현하는 인간적 삶의 추구가 얼마나 귀중한지 보여준다. 또, 지배이념이나 사회의 비인간적 상황에서도 인간성이 결코 훼손될 수 없다는 인간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운영전>,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운영전>, 국립중앙도서관본.

2. 저서

김미연 외,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1987.
김준석, 『조선후기 정치사상사 연구-국가재조론의 대두와 전개-』, 연세국학총서 32, 지식산업사, 2003.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권도경, 『조선 후기 전기소설사의 전변과 새로운 시각』, 보고사, 2004.
권택영, 『자크라캉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_____,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 민음사, 1995.
딜런 에반스, 『라캉 정신분석 사전』, 김종주 역, 인간사랑, 1998.
로버트 윌리엄 런던, 『애들러 상담이론』, 노안영 역, 학지사, 2001.
성 현, 『용재총화』, 민족문화추진회, 1997.
손 호머, 『라캉 읽기』, 김서영 역, 정신분석과 미학 총서2, 은행나무, 2006.
안자산, 『조선문학사』, 최원식 역, 을유문화사, 1984.
양운덕, 『미셸 푸코』, 살림, 2004.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자크 라캉, 『자크 라캉 욕망 이론』, 권택영 엮음, 인문사회과학총서, 문예출판사, 1994.
전경갑,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한길사, 1993.
최봉영, 『주체와 욕망』, 사계절, 2000.

최용호, 『텍스트 의미론 강의』, 인간사랑, 2004.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대우학술 총서558, 아카넷, 2003.

3. 논문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김나연, 「고전 소설에서의 열린 평가 방법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향란,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문상기, 「운영전고」, 『부산한문학 연구』 1, 부산한문학회, 1985.

문효상, 「홍석중의 황진이에 나타난 ‘육망’ 고찰」,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박경민, 「〈운영전〉의 육망추구양상과 인물성격」,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박현주, 「운영전의 여성인물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계명대 한국학논집』 3, 계명대, 1975.

성현경, 「〈운영전론(2): 〈운영전〉재론〉」,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8.

소재영, 「운영전 연구-운영의 비극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우찬제, 「육망현시 소설유형론 연구」, 『한국언어문학』 36, 한국언어문학회, 1996.

_____, 「이기영의 〈고향〉의 육망현시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9.

윤해옥, 「〈운영전의 구조적 고찰〉」,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0.

이병직, 「〈운영전〉의 성 억압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21, 한국문학회, 1997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한국고소설의 자료와 해석』, 한국고소설학회, 아세아문화사, 2001.

- 이인화, 「〈운영전〉의 애정 구현양상」,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혜경, 「운대령 소설에 나타난 주체의 욕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임수현, 「고소설에서의 플롯과 권력의 역학관계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 정해주, 「〈운영전〉의 비극적 구조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정환국,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본 〈운영전〉」,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 조혜란, 「고전 여성 산문작가의 문학세계」,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4.
- 차용주,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반영된 작가의식」, 『한국고소설의 조명』, 아세아문화사, 1990.
- 황윤실, 「17세기 애정전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욕망발현 양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전공	학 번	20068198	과 정	석사학위
성명	한글 : 박 현 옥 한문 : 朴 賢 玉 영문 : Park hyun-ok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삼익아파트 102동 101호				
연락처	E-MAIL: maska3296@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운영전>에 나타난 욕망현시 양상 영문 : A Study on Aspect of the Desire in Un-yeong-jeon'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7월 7일

저작자: 박 현 옥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